同窓會 指標
•參與
•協力
•榮光
·본회는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大學校 同窓會報

發行人 崔 主 鎬
編輯人 李 聖 秀
印刷人 崔 瑞 泳
發 行 所
서울大學校 同窓會
郵便番号 121-040
서울特別市 麻浦南 桃花洞 18-2
電話 : 702-2233～5, 717-8536～7
●銀行지로番号 : 7500875
●對替口座서울 : 010017-31-0621565

校歌 부르며 和合·結束 다짐

①

③

⑤

②

④

91년 定總 봄기운이 화사한 가운데 지난 3월 23일 열린 금년도 정기총회는 5백여 同門이 참석, 성황을 이뤘다. 〈사진〉 ① 접수장면 ② 새얼굴이 그득하여 활기넘치는 총회 광경 ③ 校歌를 부르며 結束을 다짐 ④ 總會후에 있은 연회 ⑤ 우수 支部에 대한 表彰 광경.

冠岳春秋

동문의 饗宴

요즘 심포지엄이라는 用語를 흔히 보고 또 듣기도 한다。學術討論會라는 뜻으로 새기면 별로 틀림이 없다。그러나 이 말이 그리스의 슘포지엄에서 由來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그 해석이 매우 다양해질 수 있다。슘포지엄은 본래 酒宴 또는 饗宴을 의미했다。플라톤의 슘포지엄이라는 對話錄은 饗宴이라고 번역되기도 한다。古代그리스에서는 이 슘포지엄이 매우 큰 혼을 가졌던 것 같다。그때 사람들은 슘포지엄을 통해서 친목을 도모하고 知性을 발전시켰다。술은 예나 지금이나 닫힌 마음을 풀어주고 굳어진 입을 누그러뜨려 말문을 쉽게 열게한다。플라톤의 對話錄에는 술을 마시는 장면이 많다。이것은 아마도 對話의 효과를 크게 하기 위한 것인지도 모른다。실제로 술을 마시지 않더라도 술에 관한 말을 주고 받는 일은 말문을 열어주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23일 우리 同窓會는 總會를 개최하여 이 슘포지엄을 가졌다。때마침 이른 봄의 화창한 날씨에다 週末임에도 불구하고 5백여同門이 참석하여 大盛況을 이루었음은 우리 동창회의 융성해 가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것 같았다。금년들어 새 學士 碩士 및 博士가 된 新入會員代表가 참석해서 會場은 더욱 빛났다。이로써 同門總數는 18萬을 헤아린 웅대한 숫자가 되었고 흔히 과장해서 말하던 20萬同門의 實을 기하는 일도 목전에 다가왔다 할 것이다。

趙完圭 母校 總長의 祝辭에서 우리는 나날이 발전하는 母校의 새모습을 알 수 있었다。근년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현상은 産業界의 大學에 대한 寄與이다。이에 대해서는 本欄에서도 여러차례 언급한 바 있다。그러나 總長께서 열거한 그 많은 敎育과 硏究施設 그리고 湖巖生活館과 같은 厚生施設등이 사회의 篤志家들에의해서 이루어졌음을 想起시켰을때 産學一體의 實을 실감하게 된다。

그동안 우리 同窓會에서 母校에 寄與한것도 적은 것은 아니었으나 이번 總會에서 밝혀진 奬學基金 10億의 목표달성은 특기할만 하다。돌이켜볼 때 母校의 威信에 비추어 本同窓會의 출발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초라했다。宿願이었던 독립된 同窓會館建立事業이 이루어진 것이 불과 몇년전의 일이다。그런 점을 생각할 때 奬學基金 10억을 장만했다는 것은 매우 대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듣건대 이 基金으로 해마다 給與하는 奬學金도 증액하고 敎授에게 硏究費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니 퍽 흐뭇한 일이 아닐 수 없다。그러나 그동안 社會篤志家의 母校에 대한 寄與度를 생각해 볼 때、우리 同門으로서의 母校에 대한 寄與責任이 얼마나 큰가를 새삼 痛感하게 된다。

이번 기회에 우리는 世界로 뻗어가는 우리 동문의 威力을 실감하게 되었다。이번 總會에는 美洲地域의 동문대표가 참석해서 특히 美國에 있는 同門의 소식을 전해주었다。그동안 未組織狀態에 있었던 同門들은 작년 여름과 가을 母校總長과 同窓會 會長團의 訪美를 계기삼아 동창회組織을 서두르게 되었다고 한다。그리고 금년 여름 母校總長의 訪美時에 워싱톤D·C에서 在美同門의 總同窓會를 結成할 예정이라고 한다。현재 美國에 거주하고 있는 同門數는 約1만5천이며 샌프란시스코에만도 4백50여명의 동문이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모교의 趙總長께서는 美國의 동문들이 1千萬弗정도의 基金을 마련해주었으면 하는 포부를 평소에 피력하고 계시다。그 基金은 國內로 들여오지말고 美國에서 설립하는 財團에 귀속시켜 母校敎授의 해외연구활동과 學生들의 海外奬學用으로 사용할 것을 提議하고 계시다。이런 일이 모두 이루어진다면 世界로 뻗어가는 母校의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 분명하다。

아울러、금년도 總會가 성황리에 끝을 맺게 되었음을 우리는 自祝해야 할것이다。앞으로의 큰 行事로는 가을의 冠岳山行을 들수 있다。우리 모두 가을의 山行에 다시 만날 것을 期約한다。끝으로、總會가 끝난 다음 別室에 마련된 슘포지엄이 매우 活氣찬 것이었음을 添言한다。

同窓會 91년도 豫算 14억확정

冠岳會 기금으로 5억 轉出

會報발행 親睦사업 組織強化에 주력

동창회 1991년도 예산은 90년도의 12억2천만원보다 약 2억5천여만원이 증액된 총 14억7천여만원으로 짜여졌다.

지난 3월15일 열린 제112차 常任理事會에서 최종 확정된 올해의 주요 사업으로는 △會報發行 △會員名簿 재판발행 △組織강화 △親睦사업△母校및 支部지원 △제반회의 운영 △재단법인冠岳會 기금조성 지원 등이다.

동창회의 올해 사업은 특히 會報발행과 親睦사업 組織강화 冠岳會 기금조성(10억 장학기금)에 중점이 두어졌다.

會報발행은 회원명부발간을 계기로 보다 많은 동문이 회보를 받아볼수 있도록 발행부수를 더욱 늘리기로 하여 1억4천9백여만원이 책정됐다.

그리고 등산대회및 각종 축하행사와 경조비등의 친목사업비가 5천만원, 會報보급 확대및 신규회원 발굴등 組織강화비가 7천2백만원, 10억 장학기금 조성을 위한冠岳會 기금 전출이 5억5백여만원이다.

이외에도 支部支援사업비가 전년보다 倍가량늘어난 1천4백만원으로책정됐는데, 이는 그동안 소원했던 직장및 지방지부의 활성화를 위해 同窓會旗 보급및 지부장 회의를 갖기위한 집행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보아진다.

또 定期總會등 각종회의비와 電算化기금이 각각 2천만원, 회원명부 재판 발간비 7천5백만원 母校지원사업비로 1천만원이 책정되었다. 지난해보다 2백만원이 증액되긴 했으나 총예산규모에 비해 모교지원사업 비중이 낮은것은 모교지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奬學金과 敎授 연구비는 재단법인 冠岳會에서 전담(올해 약 1억원 지원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창회 예산에는 화생행사보조및 조경지원등 冠岳會에서 할 수 없는 극히 실비조의 비용만 포함되어 있는 까닭으로 밝혀졌다.

한편 管理費부문에서는 긴축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약간의 인건비 인상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을 지난해 수준으로 묶어, 차년도에 4억5천여만원을이월시키도록 했다.

예 산 내 역

收入之部 (단위 : 원)

款	項	目	90年度豫算	91年度豫算
前年度移越			283,420,466	815,652,866
經常收入	特別會費	會長團	11,600,000	11,600,000
		理事	108,000,000	110,000,000
	分擔金	常任理事	3,100,000	3,100,000
	會費	入會金	5,500,000	5,500,000
		一般會費	160,000,000	160,000,000
經常外收入	會報廣告料		110,000,000	120,000,000
	名簿廣告料		210,000,000	-
	名簿		180,000,000	120,000,000
	收入利子		10,000,000	10,000,000
	賛助金		113,000,000	120,000,000
其他收入	假支給金		24,300,000	
	附加稅還給金		1,377,640	4,106,385
合計			1,220,298,106	1,479,959,251

支出之部 (단위 : 원)

款	項	目	90年度豫算	91年度豫算
事業費	刊行物費	會報發行	141,880,000	149,728,000
	親睦事業	親睦事業	33,000,000	35,000,000
		慶吊金	15,000,000	15,000,000
	母校支援事業	學生支援	3,000,000	5,000,000
		母校支援	5,000,000	5,000,000
	支部支援事業	協議會	4,000,000	4,000,000
		支部支援費	3,000,000	10,000,000
	組織強化	組織強化	75,600,000	72,000,000
	會議	總會	9,000,000	9,800,000
		常任理事會	3,000,000	3,000,000
		其他會議	10,000,000	8,000,000
	電算化基金		18,000,000	20,000,000
	名簿發刊費		200,000,000	75,000,000
	基金造成		3,000,000	3,000,000
	冠岳會基金轉出		5,500,000	505,500,000
管理費	人件費	給與	38,172,000	46,379,000
		賞與金	12,724,000	15,780,000
		諸手當		2,160,000
		福利厚生費	3,180,000	
	旅費	交通費	4,500,000	4,500,000
		出張費	1,500,000	3,000,000
	事務費	通信費	4,700,000	4,700,000
		事務用品費	960,000	960,000
		備品費	3,000,000	3,000,000
		印刷物費	5,500,000	5,500,000
		圖書費	1,000,000	1,000,000
	保險料		1,300,000	1,500,000
	雜費		1,000,000	1,000,000
	退職給與充當金轉入額		23,542,907	19,205,896
次年度移越			590,239,199	451,246,355
合計			1,220,298,106	1,479,959,251

「10億奬學基金」목표달성 선포

금년도 定總 祝祭분위기속 進行

동창회(회장 崔主鎬)는 지난 3월23일 오후2시 서울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 볼룸에서 91년도 定期總會를 개최했다.

崔회장과 趙完圭모교총장등 5백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총회에서는 19억3천5백만원 규모의 90년도 결산을 승인하고 동창회 현황을 보고받았다.

또 이날 총회에서는동창회의 역점사업이었던 10억장학기금의 조성이 완료되었음이 보고되어 축제분위기에 휩싸이게 했다.

崔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10억장학기금이 조성된 것은 동문여러분의 성원과 협조에 의한 성과라고 치하하고 모교와 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동문들의 계속적인지원을 요청했다.

李聖秀상임부회장은 동창회 현황보고에서 동창회원은 올해 졸업생을 포함해 모두 18만6천5백여명이며 동창회 예산은 80년도에 4천여만원이던 것이 85년도에 2억원규모가 됐고, 90년도에는20억원 규모로 커졌다고밝혔다.

이날 승인된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명부발간수입 3억여원, 동창회 수입증대및 제반 경비의 긴축 절약으로 4억8천5백여만원을 남겨 89년도 이월금과 함께 총 8억1천여만원을 차기년도로 넘기게 됐다. 이에 따라 동창회는 91년도 예산에서 5억을 장학기금에 넘김으로써 10억장학기금 조성을 가능케 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모교 趙完圭총장·金榮國부총장과 申泰煥·尹天柱·權彝赫前총장, 그리고 政·財界및 文化界 인사로는 崔珏圭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鄭鎭泰국가비상기획위원장, 金相廈대한상의회장, 李奭熙대우증권회장, 李鍾衍조흥은행장, 張翼龍㈜西光회장, 申喆均의원, 南載熙의원, 沈鍾燮前학술원회장, 金瑞鳳미협회장등이 참석했으며, 朴浚圭국회의장·金泳三민자당대표최고위원은 화환을 보내왔다. 〈詳報 5面〉

冠岳會 47차 理事會

90년도 決算승인

동창회 奬學法人 재단법인 冠岳會는 지난 3월15일 오전8시 리베라호텔에서 제47차 理事會를 열고 1990년도의 決算을 심의, 승인했다.

이날 승인된 결산서에 따르면 冠岳會의 총자산은 토지·건물등을 합쳐 23억6천4백만원, 負債는 회관임대보증금등을 포함 6억3천만원으로 資本총계는 17억3천4백만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90년도의 매출수입은 會館임대료 1억1천8백만원, 유지수입(관리비) 7천5백만원등 총 1억9천3백만원이다.

반면 지출면에서는 인건비 4천1백만원, 상여금 1천1백만원, 퇴직급여충당금 2백88만원, 복리후생비 3백37만원이며, 여비교통비는 83만원, 도서통신비 1백37만원, 수도광열비 2천3백85만원, 사무비 2백44만원, 소모품비 2백14만원 등이다.

또 세금과 공과는 1천5백25만원, 보험료 2백14만원, 수선비 9백98만원, 감가상각비 8천7백12만원, 목적사업비 3천18만원, 청소비 2백17만원, 기타접대비 우편비 광고선전비 지급수수료 잡비가 5백여만원등 총 2억4천2백67만원으로 약 4천8백74만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그러나 營業外 수익에서 찬조금 2천만원, 수입이자 3천8백만원, 잡수입 50여만원등 5천8백60여만원이 생겨 지난해 冠岳會의 순이익은 회관 감가상각비 8천7백여만원을 제외하고도 약 5백80여만원을 올린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冠岳會의 올해 예산은 8억2천만원 규모(당기예정잉여금 4억7천만원 포함)로 지난해 12월21일 열린 46차 理事會에서 승인했다.

予·決算 심의

112차 常任理事會

동창회는 지난 3월15일 제112차 常任理事會를 열고 90년도 決算과 9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집행부의 원안대로 승인했다.

리베라호텔 피어니룸에서 상임이사 31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이사회에서 崔主鎬회장은 全東龍 전 獸醫大동창회장과 李應鎬 전敎育大學院동창회장이 재임시 동창회 발전에 기여한 노고를 치하하고 감사패를 증정했다.

이어 趙完圭총장은 최근 모교의 현황을 설명하면서 『근래 논의가 일고 있는 제2工科大學문제는 모교측으로서 아직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鄭佑賢 音大동창회장은 오는 6월과 9월 각각 개최되는 동문연주회에 동문들의적극적인 지원을 구했다.

校歌·同窓會歌 카세트테이프普及

母校愛 고취 일환…올 會費 납부자에 無料 우송

製作費 일부 崔鍾賢동문 찬조

同窓會는 母校愛와 同窓愛를 더욱 고취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올해를「校歌및 同窓會歌 보급의 해」로 정하고 각종 동문모임에 이의 제창을 적극 권장키로 했다.

동창회는 이를 위해 지난 3월 교가와 동창회가가 수록된 카세트 테이프를 제작 완료, 4월부터 본격 배포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번 제작된 테이프는 총1시간 분량으로 모교 音大 金城吉(바리톤)·朴世源(테너)교수를 비롯해 黃和子(성신女大학장·M소프라노)·朴美愛(모교 音大강사·소프라노)동문들이 교가와 동창회가·한국가곡을 불렀다.

피아노반주는 모교音大의 李成均교수가, 동문교향악단의 지휘는 李南洙학장이 맡아 했다. 테이프에 수록된 연주곡목은 다음과 같다.

▲1면:교가·동창회가(독창과 제창) 동심초 희망의 나라로 ▲2면:고향의노래 바우고개 청산에살리라 박연폭포 보리밭 선구자 금단의노래 오!나의태양

동창회는 이번 계획의 1단계로 이번 정기총회에 참석한 동문 전원에게 테이프 1개씩을 증정했는데, 향후 보급은우선 91년도 동창회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에게우송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한편 이번 제작분중 일부(카세트테이프 4천개·2백80만원 상당)는 崔鍾賢(50년 農大·선경그룹會長)동문이 협찬하기도 했다.

새봄맞아 同門모임 活氣

医大·大學院·教育大學院 잇따라

醫大同窓會(회장 姜信浩)는 지난 3월4일 제36차 정기총회를 갖고 姜信浩 회장을 재추대하는 한편 임기만료된 임원을 개선하고 금년도예산 7천9백10만원을 확정했다.

金相仁의대학장·盧寬澤병원장등 1백여동문들이 참석한 이날 총회에서 姜회장은 인사를 통해「그동안 동문들의 참여와 협조를 바탕으로 동창회의 육성에 기여할 수 있었던 점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는 전년도 사업승인·감사보고에 이어 91년도 예산안과 사업신의를 원안대로 결의하는 한편 올해부터「동창의 날」을 신설, 부대행사를 갖기로 했다.

이번 총회에서 새로 선임된 부회장단은 다음과 같다.

▲孫春昊(53년卒) 姜珠祥(53년卒·在美) 尹東浩(54년卒·영등포市立병원장) 金永洪(55년卒·金외과의원장) 李吉女(인천중앙 吉병원이사장) 李柱鐸(청구성심병원) 姜錫鎬(58년卒·姜이비인후과의원장) 柳聖熙(60년卒·동서울병원장) 洪泰義(국방부의무관리관)

大學院同窓會(회장 金道昶)는 지난 3월9일 母校교수회관에서 91년도 定期總會를 개최했다. 金道昶동창회장과 趙完圭총장, 그리고 금년도 박사학위 취득자등 5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총회는 회장 인사, 총장축사, 회칙개정안 상정, 임원개선의 順으로 진행됐다. 회칙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부회장과 理事의 定員을 늘리고 임원임기를 현재 2년에서 延任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當然職고문을 母校 총장및 부총장으로 하고 前職총장·대학원장및 前職同窓會회장을 理事會에서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게 했다.

또 회칙개정은 종래의 총회 참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했던 것을 理事會 참석理事 2/3이상의 찬성으로도 총회의 의결에 갈음할수 있도록 했다. 한편 임원개선에서는 金道昶회장을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참석동문들의 만장일치로 재추대됐다. 아울러 이날 총회는 박사학위 취득자에 대한 축하연도 함께 열었다.

教育大學院同窓會(회장 위주혁)는 지난 2월22일 오후 6시30분 동창회관에서 제25차 定期總會를 개최하고 새회장에 위주혁(72년卒·장항고교장)동문, 부회장에는 장윤우(65년卒·성신여대 산업대학원장)동문을 각각 선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또회원명부 발간, 영전·박사학위 취득 회원및 정년퇴직회원에 대한 축하와 함께 회원 경조사업을 확대키로 하였으며 同門會報를 연3회 발간키로 결의했다.

工大

최우수 卒業生 시상

工大同窓會(회장 崔鍾浣)는 지난 2월25일 오전11시 모교 교수회관 제3회의실에서 李基俊학장과 동창회 임원이 자리를 함께한 가운데 각 학과 최우수졸업생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

丹菴經營圖書館 신설·開館

李珌奭동문 1억7천만원 기증

前商大同窓會長인 李珌奭동문(국제화재해상보험회장)이 내부시설과 운영자금을 기증해 설립한「丹菴 경영도서관」이 개관되어 지난 3월16일 모교 鮮京경영관에서 趙完圭총장, 崔主鎬동창회장, 李珌奭국제화재해상보험회장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가졌다.

이날 개관식에서 趙총장은「지금까지 李회장을 비롯한 가족분들이 모교의 발전을 위해 기울여 주신 후의가 상당한데 이번에도 이처럼 훌륭한 모습을 갖춘 도서관을 기증해 주셔서 감사하는 마음 표할길이 없다」고 치하했다. 이어 李珌奭동문은『사회생활을 하면서 항상 서울大人이라는 명예가 커다란 힘이 됐다』며『미력이나마 모교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총장님과 모교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신설된 단암 경영도서관은 3개의 열람실 2개의 서고, 3만여권의 장서와 3백10석의 열람석을 구비한 국제수준의 단과대학 도서관으로 李동문이 비품시설비및 운영기금으로 1억6천5백만원을 기증해 마련된 것이다.

91년 総會 協贊해 주신분

崔主鎬	同窓會長	우성모직킹텍스복지 10벌
金埈成	(株) 大宇 會長	대우 VTR 1대
崔鍾賢	鮮京그룹 會長	선경비디오테이프 50개
金基炳	롯데觀光 社長	설악산관광티켓 2인용 5조
黃寅性	아시아나항공 會長	제주도왕복항공권 2조
金善弘	起亞그룹 會長	삼천리자전거 3대
李憲祖	金星社 社長	금성칼라TV 2대
金性洙	五洋水産 會長	오양연어캔 10세트
李泓熙	東西食品 會長	동서커피 10세트
玄明官	호텔新羅 副社長	제주신라호텔숙박권 1조
申熙澈	金剛製靴 副會長	금강구두 5족
羅楨煥	亞南精密 副會長	레믹스카메라 3대
趙南煜	三扶土建 會長	경주콩코드호텔숙식권 3조
鄭夢準	現代重工業 顧問	현대무선전화기 3대
黃英奎	太平洋化學 副會長	아모레화장품 10세트
李大遠	第一毛織 社長	갤럭시신사복 3벌
金相廈	三養社 會長	삼양설탕 30캔
朴容晟	斗山그룹 副會長	OB씨그램진 240병
		토닉워터 480병
		씨크리트 12병
姜晋求	三星電子 會長	삼성오디오 1세트
具平會	럭키金星商事 會長	금성냉장고 3대
金孝圭	第一製糖 專務	백설햄 10세트
宋三錫	모나미 會長	모나미수성볼펜 1,000자루
李奭熙	大宇證券 會長	피어리스화장품 20세트
李孝益	三益樂器 會長	키보드전자악기 1대
河永基	第一生命保險 社長	진주햄 10세트
白重英	金星通信 社長	금성전화기 5대
張翼龍	(株) 西光 會長	라꼬스떼 T셔츠 5벌
		행텐 5벌
		쥬리아화장품 10세트
姜晋佑	롯데햄·우유 社長	롯데햄 5세트
許南珏	삼나스포츠 會長	나이키잠바 10벌
姜信浩	東亜製藥 會長	라미화장품 10세트
		와인 '위하여' 12병
李埈鎔	大林産業 副會長	대림오토바이 1대
玄在賢	東洋그룹 會長	반니카라멜 1,000봉

〈접수순〉

3·23 定總 詳報

量的발전 걸맞는 內實다짐

90년도 決算 만장일치로 承認

崔회장 "제2의 跳躍 기하자" 강조

○…지난 3월23일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개최된 91년도 동창회定期總會는 동창회가 그간 宿願하던 사업들이 완료된 상태에서 동문들간에 이를 自祝하는 잔치분위기로 그 흥을 더한 가운데 진행됐다. 쾌청한 봄날씨 속에 행사장에 운집한 동문들은 식장 입구에서 회장단의 영접을 받으며 그간의 안부를 묻는등 반가운 얼굴들끼리 삼삼오오 환담을 나누기도 했다.

○…吳寅泳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정기총회는 오후 2시에 그 막을 올려 국민의례·회장인사·총장축사·尹天柱전임총장의 신입회원에 대한 환영사·신입회원 대표의 답사·우수지부에대한 表彰 그리고 동창회현황보고및 부의안건심의 순서로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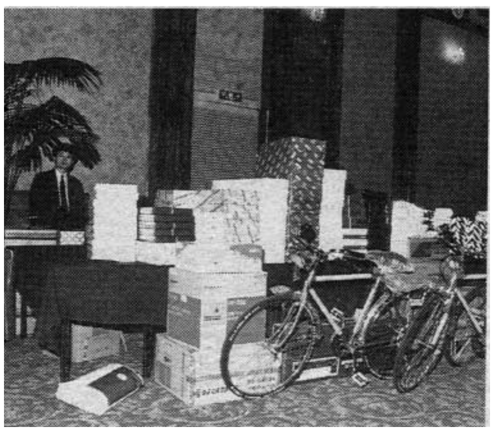
崔主鎬동창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오늘 이자리에서 지난해 동창회가 동문 여러분께 약속드렸던 10억 장학기금조성 목표가 완료됐다는보고말씀을 드릴 수 있게돼 기쁘다』며『이제 동창회는 동문 여러분의 애정어린 협조에 힘입어 도약의 기반을 다진만큼 제2의 발전을 위해 더욱 분발해야 할것이고, 우리 동문들도 각자 사회의지도급 인사로 자리잡아 바야흐로 역사를 선도하는 주체로서의 소명감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축사에 나선 母校 趙完圭총장은『오늘날 모교가 안고 있는 최우선 과제는 세계무대에서 당당하게 제 몫을 할수 있는 位相을 갖추는 것이라고 전제한 후『교육의 질적 향상은 부입하는 財源에 상응하느니만큼 동문들의 뜨거운 성원과 협조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는 올해 새로 동창회원이 된 6천14명의 신입회원들 가운데 대표들을 초청, 선후배간에 상견례를 갖는등 시종 생기넘치는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尹天柱 前모교총장은 선배를 대표, 신입회원 환영사를 통해『서울大 졸업생들이 어느곳에 가든남다른 노력으로 나름대로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에 자부심을 느끼며, 이점 선배로서 후배들에 대해 부끄럽지 않은 밑거름이 됐음을 자부한다』고 말하면서『오늘 이자리에 참석한 후배들도 훗날 선배의 입장에 섰을때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世代가 되어야 할것이며, 아울러 모교의 발전에 기여하는데도 자발적인 자세를 견지할 것을 당부했다.

신입회원 대표로 나온 崔仁星(自然大卒·大學院재학중·동창회장상 수상)동문은『재학중 훌륭하신 선배님들의 後光으로 인한 혜택을 많이 입었다』며『앞으로 서울大人으로서의 긍지를 가슴에 품고 창조적인 노력으로써 사회의 발전을 위해 기여하는 것이 모교와 선배님들께 보답하는 길임을 명심하겠다』고 말했다.

◇總會광경



◇각계에서 보내온 景品

優秀支部 간사장 表彰 격려

美洲地域 대표 참석, 현지 動向 보고

90년 收入중 會費는 15%線

○…이어 실시된 表彰式에서는 서울産業大學의 유경근동문과 春川교육대학의 이형준동문에 대해 우수지부 간사장 표창패가 수여됐으며, 농수산물유통공사·대한전선㈜·대한제당㈜·동양맥주㈜·富川지부 동에는 우수지부 표창패가 수여됐다. 이들 지부는 지난 한해동안각 지부 조직강화및 동문간의 친목향상등 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아 참석한 동문들로부터 뜨거운 찬사를 받았다.

○…이날 總會석상에는 특별히 行政府에서 崔珖圭(57년 文理大卒·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동문이 참석해 행사를 빛내기도. 또한 80代의 老齡에도 불구하고 全禮鎔(30년 高商卒·뉴내자호텔會長)동문이 참석해 후배들의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기도 했다.

한편 美洲지부를 대표해 林承快(70년 文理大卒·샌프란시스코지부會長)동문이 특별 참석해 눈길을 끌었는데, 林동문은 인사를 통해『지난해 崔主鎬회장을 비롯한 동창회장단의 방미후 미주지역 동문들이 비약적으로 결속하는 계기가 됐다』며『이에 힘입어 오는 6월에는 워싱턴 D·C에서 미주지역 동문들의숙원이던 총동창회의 결성이 이루어지게 됐다』고 보고했다.

이밖에도 부산·대전·춘천 등 경향각지에서 올라온 동문들로 總會場은 모처럼의 만남을 만끽하는 분위기로 넘쳤다.

○…李聖秀상임부회장은 동창회 현황보고를 통해『올해로 동창회는 18만6천5백명의 회원을 보유하게 된 만큼 양적인 발전에 버금가는 내실을 다지기 위해 동문들의관심과 협조가 배가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李부회장은『지난 80년도에 동창회 예산이 4천여만원이었고, 85년도에야 2억원 정도의 규모가 됐으나 그중 75%이상이 회원들의 회비로 이루어졌었다』며『90년도에 와서는 동창회가 20억원 규모의 재정을 확보했는데, 그중 회비는 2억5천만원 정도였다』고 밝혔다.

한편『작년 총회때 동문들께 약속했던 10億장학기금 조성사업이 완료돼 올해부터는 그 과실금 약 1억원을 장학금과 교수연구비로 지원할 수 있게돼 무엇보다도 崔회장을 비롯한 동문들의 그간의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말해 장내를 가득메운 동문들로부터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기도.

이어 吳寅泳사무처장으로부터 90년도 동창회결산보고가 있었으며, 嚴宗鎭감사로부터 감사보고가 있었다. 곧바로 李상임부회장이 회장을 대신해 질의의견을 타진한 결과 참석동문의 만장일치로 결산보고(별표 참조)를 승인함으로써 이날의 부의안건을 끝냈다.

○…이날 행사장에는 약 60여명의 신입회원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는데, 이들은 행사장 입구에서 접수업무를 자청해 도와주기도 했으며, 총회석상에서의 교가제창시에는 이은정(90년 音大卒)동문이 반주를 맡아보기도 해 젊은 동문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돋보였다.

○…공식적인 총회일정을 마치고는 곧바로 여흥을 겸한 칵테일파티에 들어갔다. 허남영(89년音大卒)동문의 사회로 진행된 여흥순서에는 동문들이 협찬해준 2백50여점의 경품을 추첨하는등 시간가는줄 모르는 가운데 진행됐다.

특별기념품은 崔회장이 기증한 양복지를 비롯, VTR·칼라TV·냉장고·전자올간 등(4面 협찬품목록 참조)이었다.

결산내역

收入之部 (단위 : 원)

款	項	目	90年度豫算	實績
前年度移越			283,420,466	815,652,866
經常收入	特別會費	會長團	11,600,000	10,800,000
		理事	108,000,000	105,960,000
	分擔金	常任理事	3,100,000	2,800,000
	會費	入會金	5,500,000	5,390,000
		一般會費	160,000,000	131,320,870
經常外收入	會報廣告料		110,000,000	118,722,500
	名簿廣告料		210,000,000	306,211,818
	名簿		180,000,000	242,500,000
	受入利子		10,000,000	30,734,422
	贊助金		113,000,000	139,995,210
	雜收入		-	12
其他收入	附加稅還給金		1,377,640	1,377,640
	假支給金		24,300,000	24,300,000
合計			1,220,298,106	1,935,765,338

支出之部 (단위 : 원)

款	項	目	90年度豫算	實績
事業費	刊行物費	會報發行	141,880,000	130,756,730
	親睦事業	親睦事業	33,000,000	33,400,496
		慶弔金	15,000,000	8,650,000
	母校支援事業	學生支援	3,000,000	2,660,900
		母校支援	5,000,000	3,200,000
	支部支援事業	協議會	4,000,000	-
		支部支援費	3,000,000	1,262,500
	組織强化	組織强化	75,600,000	79,912,030
	會議	總會	9,000,000	8,951,357
		常任理事會	3,000,000	500,290
		其他會議	10,000,000	753,818
	電算化基金		18,000,000	17,521,975
	名簿發刊費		200,000,000	231,665,285
	基金造成		3,000,000	-
	冠岳會基金轉出		5,500,000	5,390,000
管理費	人件費	給與	38,172,000	40,452,000
		賞與金	12,724,000	12,724,000
		福利厚生費	3,180,000	-
	旅費	交通費	4,500,000	2,522,950
		出張費	1,500,000	907,158
	事務費	通信費	4,700,000	3,467,420
		事務用品費	960,000	574,120
		備品費	3,000,000	207,640
		印刷物費	5,500,000	1,631,568
		圖書費	1,000,000	574,700
	保險料		1,300,000	1,365,200
	雜費		1,000,000	744,830
	退職給與充當金轉入額		23,542,907	19,205,896
次年度移越			590,239,199	485,431,969
合計			1,220,298,106	1,094,434,832

걸프戰爭을 통해 본 國際政治

時論

美國「팍스 아메리카나」時代 맞아

蘇聯은 냉전에서 敗해 2등國으로 전락

地上戰 종결은 너무 서둔 決定

美-蘇간 緊張 재연될 수있고 아시아地域 風浪 격해질 조짐

朴奉植
〈55년 文理大卒·母校 社會大 外交學科교수〉

말해서 美國의 유일 강대국으로서의 실력을 확인시켜주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전쟁 초기에는 전쟁의 장기화에 대한 공포심과 美國사회의 인내심 결핍등으로 인하여 즉각 인식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전에 있었던 많은 전쟁의 역사와 中東지역의 성격에서 본다면 美國의 결정적 승리는 처음부터 명약관화한 일이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한 인식을 더디게 한 것은 최교권 또는 아랍권국가들의 단결력을 과신하고 있었던데서도 비롯된다. 이미 여러 차례의 中東분규에서 아랍권의 단결은 과거지사가 된지 오래이다.

2、美國이 주도하는 세계정치

2차대전 후 美·蘇간의냉전에서 蘇聯이 탈락함으로써 美國 주도의 세계정치가 전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전쟁을 통해서 세상사람들이 알게 되었다. 美國은 유엔안보리의 결의들을 통해서 제도적 合法性을 확보하고 이를 실천에 옮길 충분한 戰力을 동원하였다.

사담 후세인은 美國이 54만명의 병력을 中東에까지파병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지 않았다. 그리고 같은 회교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美軍을 주둔시켜 이라크와 대결할것을 기가 있을 줄 볼것이다. 1972년 이래 동맹국이나 다름없는 蘇聯이 유엔에서 美國에 동조하리라고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쿠웨이트의 합병은 기정사실화할 수 있다고 후세인은 믿었던 것 같다.

美國은 美軍을 포함하여 74만 1천8백42명의 병력을 37개국으로부터 동원하였다. 아프가니스탄도 3백명의 경비병을 보냈다. 이 많은 多國籍軍을 종합적인 전력으로만들어 내는데 성공한 슈워츠코프장군은 20세기말의 名將으로 떠 올랐다.

이번 걸프전쟁은 한마디로 부시 미국대통령은 「신세계질서」는 「自由와 正義를 위해 여러 나라가 책임을지는 국제정치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이것은 1918년에 「국제연합」도 같은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그러나 여기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나라중에 蘇聯이란 독재국가를 동반할수 없었기 때문에 그 목적은 달성되지 않았다. 독재자 후세인을 제거하기 위해 美國과 동맹국으로 협력한 지리아는 이라크 못지 않은 독재국가이며, 레바논을 거의합병하고 있는 현상이 묵인되고 있다. 그리고 쿠웨이트, 사우디, 모로코 등도 아직도 절대군주의체제를 가지고있다. 이들 군주들이나 시리아의 대통령이 自由와 正義를 위해 그들의 권력을 감소시킬 생각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중동의 시리아 이집트 등은 英國과 프랑스보다 많은 탱크를 가지고 있으며 이 지역의 여러나라들은 1983년 이래 1천2백50억불의 무기, 즉 세계무기거래의 반이상을 사들였다고 한다. 이들은 처음에는이교도인 이스라엘을 겨냥해서 무력증강을 한다고 해왔으나 이제는 아랍 형제국가의무력경쟁으로 변하고 있으며이란도 무력증강에는 돈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한편 美國도 中東지역에무기금수를 주장하면서 한편으로 中東國家간의 새력균형을 위해 일부 국가에 무기수출을 할 작정이다.

자유와 정의를 위한다면美國은 蘇聯의 보수회귀와 中共의 인권문제에 동한할 수 없을 것이다. 미국은 발칵3국의 독립과 관련하여 소련의 영토를 미국이 소련을승인하던 1933년 당시의 영토 범위로 본다고 하여 발칵3국의 독립운동을 지지하고 있다. 이러한 일들이 두드러질때 美·蘇간의 긴장은 재연될 수 있다. 이미 美·蘇간 軍縮등 양국간의 현안은 진행이 중지되고 있는상태에서 이라크에서의 확주적 休戰성립을 기다리고 있다.

蘇聯이 냉전에서 패해 2농국으로 쳐지고 말았으며 3월31일로 왈소동맹은 해체되었고 체코와 헝가리등은 나토와 관계를 맺는 방법을생각하고 있다.

냉전에 승리한 美國은 「팍스 아메리카나」의 시대를 맞았으나 그도 만신창이의 승리자라 할수 있다. 만신창이기 때문에 施惠的인 자세를 취할 수 없는 형편이다. 따라서 대한 財政적자와 貿易적자를 바로 잡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기 위해 「자유와 정의」의 구현을 위해 협력해야할 우방들에 압력을 넣지 않을 수 없다.

특히 自由와 正義는 경제적인 여유를 전제로 하는데 오늘날 이를 위해 출자의능력을 가진 나라는 日本 뿐이다. 獨逸은 東獨문제로 여유가 없다.

3、美·日협조의 당위와 관계

걸프전후 복구를 위해 미국은 「中東銀行」 같은 것을 만들자고 하고 있고 돈을가진 日本은 기존하는 「세계은행」 등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새 은행의 창설이필요없다는 입장이다. 美國은새은행을 창설하는 과정에서 은행의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고 있으며, 日本은이미 일본이 발언권을 가지고 있는 기존의 금융제도를 그대로 쓰자고 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製造業협회는 대통령에게 일본과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것을 요구하고 있다. 美·日경제문제는 레이건대통령 시대처럼 일본시장개방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양국간 생활의 質에서 격차가 생길 수 있는 단계에 왔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여기에 이르면 부시의 「신세계질서」는 당분간 뒤로 미루어지고 말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이라크의 장래문제도 전투에서의 승리만큼 간단치 않은 것같다. 1백일 지상전투의종결은 너무 서둔 결정이었다. 이라크의 탱크는 예상보다많이 남았으며 혁명수비대도궤멸 직전에서 休戰이 되었기 때문에 후세인을 권좌에서 밀어내기는 어려운 지경이다.

이라크의 內政이 후세인이 제거되고 쿠르드족과 시아파 등을 합친 연립정부 같은것으로 되어주기를 바랐으나아란이 어부지리를 보려하자이라크내의 반후세인세력의 득세를 견제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이르러 이라크내의 休戰과 政治安定은 다소 시간이 걸릴 예정이다.

사실 美國은 이러한 일에 시간을 많이 소비할 수 있을만큼 여유가 있는 처지가 아니다. 中東經濟 복구방법을 현명하게 짜서 日本의 발목을 잡아야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 할수 있다. 시장경제의 원리를 가장 적게적용하면서 일본을 견제하는기회는 바로 중동 복구의 과정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日本도 이제 걸프전 이후에는 美國에 대해할 말을 하면서 대응하겠다는자세이다. 日本이 북방 4개도서와 관련하여 蘇聯에게 경제적인 보상을 시도하는것도 미국에 대한 간접적인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걸프전쟁후 아시아지역은아직 냉전구도를 그대로 가진 상태에서 美·日 그리고 蘇聯의 이데올로기를 초월하는 경쟁적 정책전개로 풍랑이격해질것 같이 보인다. 그리고 日本은 北韓과의 수교와 북한에 대한 보상금 지급의방법으로 한반도에서 어느 나라보다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될 것같다.

우리가 정치현사로 짝짜여진 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 이 지역주변의 강대국정치는 크게 굽이치고 있어이일의 심각성이 국민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걱정된다.

잊을 수 없는 스승

산악같았던 그분 鄭漢模선생님

學術·詩創作 분야에 큰 발자취

現代文學연구 독립된 學問으로 정립

〈65년 文理大卒·母校 人文大교수〉

—吳世榮

세상에는 많고 많은 스승들이 계시지만 특별한 관계로 맺어진 스승은 그리 흔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나의 경우 이 특별한 관계로 맺어진 스승님 가운데 한분은 鄭漢模선생님(사진)이시다. 그것은 단지 내가 그분의 강의를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대학원에서 그분의 지도로 碩士 博士학위를 받았고 또 文學創作에서도 많은 격려를 입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까닭으로 나는 그분을 가까이서 뫼실 기회가 많았고 그분과 접촉할 기회를 자주 가진 제자들 중의 하나가 되었다.

나와 鄭漢模선생님과의 인연은 내가 대학 2학년때인 1962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 당시 文理大 국문과 학풍은 주로 국어학과 고전문학 연구가 중심이 되었고 현대문학 연구는 주변으로 밀려나 있거나 아예 學問으로서의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은 때였다. 그런 까닭에 현대문학 전공 전임교수는 新小說을 연구하시는 全光鏞선생님 한분 밖에 계시지 않았다. 따라서 시를 쓰고 연구하기 위해 국문과를 들어온 나의 상심은 컸다. 이같은 과분위기의 중압으로 2학년때는 한동안 대학에 입학했던 애초의 동기와는 다르게 국어학을 전공하기로 결심한적도 있었다. 그러나 문학을 창작 연구하고 싶었던 소년시절의 꿈을 쉽게 버리지 못했던 나는 여러가지로 방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나의 이와같은 방황을 구원하신 분이 鄭漢模선생님과 李御寧선생님이었던 것이다. 온통 국어학과 고전문학연구의 열기로 휩싸여 있던 당시의 科 학풍에서 시간강사로 나오신 鄭漢模선생님의 시론과 李御寧선생님의 비평론은 내게 있어참으로 경이로운 바 있었다. 이후 내가 국어학 연구의 길을 포기하고 다시 현대문학연구의 길로 발을 돌리게 된 계기도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鄭漢模선생님이 전임교수로서 나의 스승이 되신 것은 그보다 몇년 뒤인 내가 대학원에 입학하고서부터였지만 기실 나로 하여금 오늘처럼 시를 쓰고 시를 연구하도록 이끌어주신 가르침은 이때부터였다고 말할 수 있다.

鄭漢模선생님은 1923년 忠南扶餘에서 태어나 아직 고희를 1년 앞둔 지난 2월에 작고하셨으므로 우리 나이 69세를 사신셈이다. 그러나 선생님께서는 당신의 생애보다 훨씬 많은 일들을 하시고 돌아가셨으니 세속적인 연륜으로 말할 일이 아니다. 돌이켜보면 선생님의 생애는 만년의 2~3년 외도하신것을 제외하고 평생 학문과 시창작에 몰두하신 삶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도 서울대학교에서의 삶이었다. 선생님께서 서울대학교와 인연을 맺기 시작한 것은 1947년 당신이 서울대학교 국문과에 입학하실 때부터였다. 그후 대학원을 이수하시고 수년간 모교의 시간 강사와 전임교수로 지난 88년까지봉직하셨으니 비록 전임교수로서의 기간은 23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나 성인으로서의 생애의 대부분을 서울대학교에서 보내셨다고 말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선생님께서는 학술과 시창작의 두분야에서 많은업적을 남기셨다. 먼저 학술에 있어 선생님은 당시문단비평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던 우리 현대문학 현대시연구를 학문연구의수준으로 끌어 올려 각 대학의 국문과에 現代文學연구를 하나의 독립된 분야로 정립시키는데 크게 공헌하셨다. 그와같은 업적으로 선생님은 「한국현대시문학사」, 「현대시론」, 「한국현대시의 정수」, 「한국현대시의 현장」등 십여권이 넘는 저서를 남기셨는데 그중 「한국현대시문학사」는 우리의 현대시를 史的으로 정리하는데 있어후학들에게 하나의 시금석과 같은 大著라 할 수 있다.

시창작분야에 있어서도 선생님은 괄목할만 한 성과를 이룩하셨다. 선생님께서는 해방 이후 다난했던우리의 현실—특히 6·25와 같은 민족적 비극을겪으시면서 생명존중의 휴머니즘으로 이를 극복하려는 시정신을 보여주셨는데 이는 한국 현대시의 서정성에 한 맥을 발전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당신이 내신 6권의 창작시집 〈카오스의 사족〉, 〈여백을 위한 서정〉, 〈아가의 방〉, 〈새벽〉, 〈아가의 방별사〉, 〈원점에서〉와 2권의 선시집 〈나비의 여행〉, 〈사랑시편〉에 반영되어 있다.

선생님은 생전에 어떤자리에서 푸념 비슷이 내게 「나는 일복이 많은가봐가는 자리마다 일이 생겨」라고 말하신적이 있었다. 그때는 별 생각을 하지 않고 흘려보냈는데 지금와서 돌이켜보면 선생님께서는매우 부지런하고 의욕적인생을 사신 분이었던 것같다. 당신은 만년에 외도로 몇개의 관직을 가지신 적이 있다. 放送通信大學長, 文藝振興院長, 文公部長官등의 직함이 그것이다. 언뜻 생각하기에 이들 직함은 선생님으로서는 외도인 것같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그보다는 선생님의 전공을 현실에서 펴는 그 실천행위였다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放送通信大學은 당시이 대학이 서울대학교에 부설되어 있었으므로 학내 보직이라 할 수 있고 文藝振興院長이나 文公部長官은 그 성격상 학문과 예술을 겸한 사람이 맡아야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이들 관직을 맡으신 선생님께서는 전임자의 그 누구보다도 많은 일을 하셨다. 먼저 放送通信大學長으로서의 선생님은 당시 서울대학교의부설로 교사하나 가지지 못했던 이 학교에 부임하셔서 웅대한 대학건물을 지으시고 방송통신대학을명실공히 독립된 대학으로발전시키는데 공헌하셨다. 文藝振興院長으로서 선생님은 문화예술가들에 대한 지원제도를 확립시켜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실제 창작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시고 지방문화 활성화를 위한 한 방안으로서 지방문화원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정책을 마련하셨다. 6공화국의 초대 文公部長官으로서 선생님은 문화부 독립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셨을 뿐아니라 해방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문화예술계의 숙원이던 월북 및 납북작가의 작품을 금서에서 해제시키고 이들의 신원을 푸는 일을 매듭지으셨다. 이는 상찬받아 마땅할 쾌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 **화낼줄 모르는 仁慈·溫和한 성품**
> 放送通信大學長 文藝振興院長 文公部長官등 지내
> **越北·拉北작가 작품 禁書 풀어줘**

선생님은 성품이 온화하고 인자하셨다. 나는 선생님께서 화를 내시거나 얼굴을 붉히신적을 단 한번도 뵌적이 없다. 선생님은 나무라시거나 꾸지람을 하지 않으시면서도 상대방이 스스로 자신의 과오를 깨닫게 하는 비법을 가지지 않았나 생각된다. 좌중에서 어떤이의 약점이 화제에 오를 때도 선생님만은 그를 두둔하시고 그의 좋은 점을 지적하셔서 감싸시곤 하셨다. 그래서 그런지 선생님의 문하에는 많은 제자들이 몰려들었고 아마 선생님의 문하에서 배출된 博士만 해도 수십명이 되지 않을까 한다. 선생님은 성품이 온화 인자하시지만 한편으로는 매우 의연하시고 대범하여 당당한 일면을 가지고 계셨다. 그것은 당신이 임종을 맞이하시면서 극적으로 보여준 것이기도 하다. 선생님께서 작고하셨다는 부음이 메스컴에 보도되었을때 제자를 포함해서 많은 지인들은 그것을 쉽게 믿으려하지 않았다. 엊그제까지도 의연하게 사회생활을 하셨기 때문이다. 필자의 경우에도 지난 12월 한춘 박사를 심사하는 자리와 1월의 세배자리에서 선생님을 뵌 적이 있었다. 당시 선생님께서는 아무런 내색을 하지 않고 약주를 평소와 다름없이 잡수시고 오히려 내게 술을 권하시는 것이었다. 그러나 일[illegible] 분에게 들으니 이미 선생님께서는 당신이 췌장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다는 것이다. 생사를 초연하실 수 있는 것 같은 의연함이야 말로 선생님의 진면목이 아닌가 싶다.

인간이 사는 길은 다양하다. 그러나 나처럼 文學을 연구하고 또 시를 쓰는 사람들에게 있어 선생님이 걸어가신 길은 귀감이 되리라 생각한다. 삼가 선생님의 영전에 명복을 비는 바이다.

母校 研究所 실태

工學계열

工學은 산업계와 긴밀한 연계를 전제로 교육과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때문에 高附加價値지향의 기술혁신과 과학기술의 발전이라는 지상명제가 부여된 산업사회에서 이 분야에 대한 연구활동은 국가 산업의 흥망을 좌우하는 역할을 수임할 수 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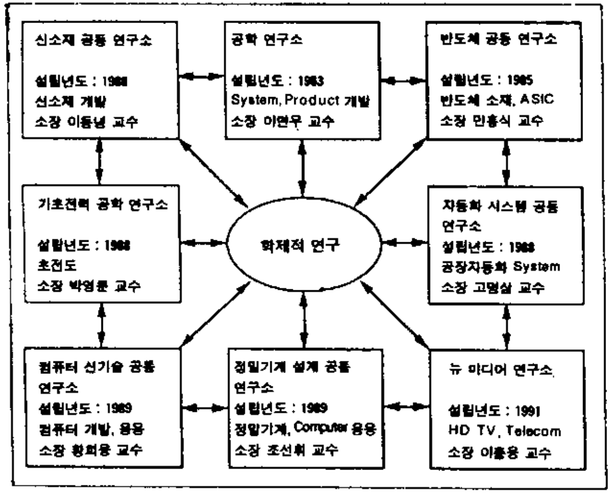
최근 우리 산업계의 주변여건은 흔히들 회자되는 말로 「十面楚歌」로 표현되고 있다. 즉 시장보호장벽 내수시장 개발압력·산업기술 취약·후발국의 추적등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 새로운 과학기술의 육성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별표에 나타난것 처럼 모교의 공학계열 연구소는 學制的 종합연구를 지향하는 공학연구소와 첨단분야의 신기술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7개 전문연구소로 구성돼 있다. 특히 7개의 전문연구소는 정부의 지원, 정부기관의 출연, 기업의 기부등 형태로 최근 5년간에 걸쳐 설립됐다. 여기서는 공학계열 연구소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공학연구소의 예를 들어 보기로 한다.

工學연구소는 63년도에 설립됐으며 89년에 일러모교 공학분야의 종합연구소로 확장됐는데, 지난 28년간 산업체를 포함한 4백여 연구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를 의뢰받아 1천4백여 과제, 2백억원 규모의 연구수행 실적을 보였다. 이들 연구의 특성을 분석해 보면 우선 연구비 재원분포에 있어 산업계 지원이 50%, 정부및 국영기업체가 23%, 국가출연연구소 15%로 구성돼 있다. 연구비 지원추세를 보면 85년도 이후에 투입된 연구비가 1백70억원을 차지하고 있어 산학협력 연구가 극히 최근에 태동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연구기간이 1년 이내인 연구가 72%, 교수의 개인연구가 75%를 차지하고 있어 대학연구를 정착해야 할 장기적이고도 학제적인 공동연구는 아직 활발하지 못한 형편이다. 이와 관련, 대학 관계자들은 연구의 영세성, 연구의 단기성과 일과성으로 인해 대학의 연구활동은 아직 유아기에 머물고 있다고 자평한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공학계열 연구소는 산업기술을 지원하고 산업계의 전문연구인력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부단히 새로운 프로젝트를 개발·추진하고 있다.

企画 取材

〈끝〉



공학계열 연구소 현황

産學협동 활발 지난해 연구비 98억

하이터치 電子제품 20여종 開發, 海外서 각광

대학의 연구활동이 산업발전과 직결되고 있음은 익히 알려진 사실로서, 예를 들면 스탠포드-버클리大學과 실리콘밸리의 첨단기술 연계체제에서 반도체혁명의 발전과정을 목격할 수 있고, MIT-하바드大學 등 美동부의 명문대학과 인접한 지역의 산학협력체제에서 신소재개발, 통신혁명과 우주개발이 촉진됐다. 이러한 기술 선진국 성공사례의 특징은 대학연구의 집적 우수성과 이를 지원하는 산업체간의 유효적절한 공동협력체제에 있다.

모교 공학연구소도 지난 89년부터 국내기업과 고부가가치를 지닌 신제품개발을 위한 연구를 통해 Hi-Touch전자제품 20여종을 개발했는데, 이 과정에서 1백80여개의 특허출원이 이루어졌다. 이들 제품은 해외에서의 소비자반응 조사와 각종 매체로부터 「획기적」이라는 평을 얻어냈으며, 해외 바이어들로부터 기존 제품가격의 3배 이상으로 수출가격 제의를 받고 있어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힌다.

한편 공학연구소는 7개 전문연구소와 공동으로 독자적 선도기술의 창출을 위해 장기 연구추진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 계획의 일환으로서 공동연구 콘소시움(STRAC)이 이미 모교안에 설립됐고, 공학정보센터의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공동연구 콘소시움(Consortium)은 대학측이 학제적인 공동연구팀을 결성하고, 산업계의 회원기업을 모집하여 여기서 회원의 공동연구과제를 선정, 연구를 추진함으로써 산학협동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연구협력제도를 말한다. 즉 연구과제가 선정되면 대학은 연구에만 전념하고, 회원으로 가입한 기업은 연구비의 공동부담을 통해 한정된 예산투입으로 효율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STRAC은 10명의 첨단기술분야 교수와 12명의 대학원생으로 공동연구진을 구성한 상태에서 14개의 중소기업 회원사로부터 22개의 첨단기술 과제를 선정,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같은 공동연구 콘소시움은 대기업간, 중소기업간, 산업분야간에 더욱 확대될 여지가 있으며, 이로부터 대학간 협력과 지역간 교류를 통한 연구개발의 효과적 확산이 기대되고 있다.

공학계열 연구소에 투입된 연구비는 90년도에 98억원에 이르고 있는데 7개 전문연구소의 건물이 완공됨에 따라 앞으로 더욱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게 됐다.

先進國 비하면 乳兒期상태, 政府 産業界 學界 공동노력해야

그간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계속 강조돼왔으나 아직까지도 공학분야의 기술은 해외 낙후기술의 의존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위기에 처한 산업계의 활로는 기술혁신과 과학기술의 발전에서 찾아야 한다는 국가적·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산업계·학계의 공동노력이 절실하다.

참고로 우리의 과학기술투자 절대액은 $36억(88년도 기준)으로서 미국의 $1천2백억, 일본의 $6백25억은 차치하고라도 서독의 $3백10억과 비교할 때 절대적 부족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열세가 지속되는 한 기술선진국과의 격차는 심화될 수 밖에 없다. 87년도 통계자료에 의하면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박사인력이 8천9백76명으로서 전체박사인력 1만1천4백55명의 76%에 해당하는 반면 연구비는 전체 연구예산의 10%에 머물고 있다. 연구인력 보유수준의 지표가 되는 인구 만명당 연구원수는 한국이 12·5명인데 비해 일본과 미국은 40명을 상회하고 있다. 이렇게 연구원의 절대수가 부족한 실정에서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78%의 전문 연구인력이 그나마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국내 공학발전을 선도해야 할 모교의 현位相을 반증하는데 다름 아니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모교 공학계열 연구소관계자들의 표현을 빌면 엄밀한 의미에서의 첨단기술은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기술」로 정의된다고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간의 연구과정을 통해 발견되는 현상 중에서 창의적인 연구대상을 선정하고, 이로부터 「세계 최초」의 High-Tech를 창출하려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우리는 흔히 국내 연구결과의 홍보를 통해 「세계에서 2번째 개가」「선진국 기술수준」이라는 희망적 구호를 접하고 있지만 엄밀하게 말해 이는 엄연한 「후발 추적기술」이며 「선진국 기술수준」은 독자적인 연구결과를 창출하지 않는한 여전히 그네들의 과실을 모방하는 안일한 태도로 여겨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과학기술정책의 추진은 국가발전여부의 관건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러한 터전 위에 대학의 적극적 참여없이, 산업계의 실정과 요구가 무시된 채 안일하게 이루어지는 정책과 예산배분은 재고돼야 한다는 것이 연구종사자들의 결론이었다.

▲柳達永(36년 農大卒·母校 名譽敎授)=30년간 모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후학양성과 전국농업기술자협회 회장으로서 복지농촌 실현을 위해 생애를 바쳐온 업적으로 지난 3월16일 常虛문화대상(농촌부문)을 수상.

▲兪碩鎭(44년 醫大卒·베드로神經精神科院長·本會理事)=국제로타리 제365 서울지구 총재로서 지난 2월21일 창립86주년 合同週會를 하얏트호텔에서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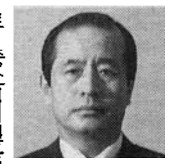
▲李文鎬(46년 醫大卒·서울중앙병원의료원장·本會理事)=지난 2월22일 열린 한국지혈혈전연구회 창립총회에서 초대회장으로 선출됨.

▲李應百(49년 師大卒·모교 名譽敎授·本報編輯委員)=한국수필문학진흥회 회장으로서 3월30일 한국문예진흥원 강당에서 제9회 현대수필문학상을 시상.

▲劉貞烈(50년 藥大卒·德成女大교수)=지난 3월5일자로 德成女大 총장으로 임명됨.

▲全民濟(50년 大學院卒·全인터내쇼날사장·本會理事)=지난 2월23일 열린 한국재료학회 창립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임됨.

▲具平會(51년 文理大卒·럭키금성商事회장·本會副會長)=지난 3월6일 열린 韓美경제협의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임됨.



▲金炯培(55년 法大卒·前한국소비자보호원장)=2월22일자로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됨.

▲金英均(55년 醫大卒·母校교수·本會理事)=지난 2월22일 제1회 湖巖賞(의학부문·상금 5천만원)을 수상.

▲張玉龍(56년 工大卒)=지난 3월1일자로 송파工高 校長으로 발령됨.

▲趙光濟(56년 法大卒)=지난 2월28일자로 외교안보연구원 연구위원에서 駐포르투갈 대사에 임명됨.

▲黃英奎(56년 法大卒·태평양화학부회장·本會理事)=지난2월26일 대한화장품공업협회정기총회에서 새회장으로 선출됨.

▲金鍾琭(56년 師大卒)=지난 2월 신성개발산업주식회사 代表理事에 취임.

▲柳光烈(56년 師大卒·成和出版社 사장·本會理事)=「펜」회 대표로 호주·뉴질랜드여행을 마치고 3월11일 귀국. 또 詩同人誌〈靑坡 14집〉을 간행, 출판기념회를 가짐.

▲李鍾衍(56년 商大卒·本會理事)=지난2월 조흥은행 전무에서 銀行長으로 승진.

▲柳赫仁(57년 文理大卒·한국국제문화협회장)=지난 3월12일 英國 런던 소재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이사로 피선. 同연구소는 국제관계 및 군사전략문제에서 세

▲金允在(57년 商大卒·本會理事)=지난 2월20일자로 효성바스프 사장에서 東洋染工 사장으로 전보.

▲成旭基(57년 商大卒·本會理事)=지난 2월 한국수출입은행 專務에서 충청은행 行長으로 영전.

▲羅基英(58년 文理大卒·한남대교수)=지난 3월1일자로 同校 학생생활연구소소장에서 經商大학장에 취임.

▲洪在鶴(59년 工大卒)=지난 2월16일 단국대 기계공학과 교수에서 항공우주연구소 소장으로 취임.

▲金炯英(60년 商大卒)=지난2월20일 慶南銀行專務에서 銀行長으로 승진.

▲張仁淑(60년 行政大學院卒·前문교차관)=지난2월12일 교육부장관자문기구로 새로 발족한 대학교육심의회 초대위원장으로 선출됨.

動靜

이 欄은 同門들의 동정을 全회원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사진과 함께 記事를 보내주시면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용 있으시길 바랍니다. 電話로 통보해 주셔도 됩니다. 단, 本報의 편집방침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年3回 이상 게재치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電話 : (702) 2233~5
FAX : (703) 0755

▲李惟善(61년 商大卒)=지난2월28일 한국외환은행 본점 영업2본부 업무추진역에서 영등포지점장으로 영전.

▲禹仁性(62년 工

▲金憲武(63년 法大卒·本會理事)=지난 3월11일자로 서울고법부장판사에서 全州지방법원장에 임명됨.

▲權七秀(63년 醫大卒·인제의대교수)=지난 3월1일자로 인제大부속 서울백병원에서 상계백병원 정형외과 과장으로 전임.

▲李純鎔(63년 醫大卒·인제의대교수·本會理事)=지난 3월1일자로 인제의대학장에 취임.

▲金顯燦(64년 醫大卒·인제의대교수)=지난 3월1일 同校 중앙의학연구소장에 임명됨.

▲金平浩(65년 工大卒)=지난2월1일 ㈜한양 전무이사에서 진아건축도시 代表理事로 취임.

▲林熙完(65년 文理大卒)=최근 시드니 버렐의 「서양근대사에서 종교의 역할」을 번역하여 간행.

▲元佑鉉(65년 法大卒·고려大교수)=지난3월8일부터 9일까지 양일간 프레스센터기자회견장에서 「쟁점과 토론」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

▲金恒德(65년 商大卒·油公사장·本會理事)=지난2월20일 열린 대한석유협회 정기총회에서

▲鄭大哲(67년 法大卒·國會議員·本會理事)=지난2월22일 미주리대학이 선정, 수여하는 올해의 동문상을 수상.

▲玄基榮(67년 師大卒·作家)=최근 세번째 창작집 「위기의 사내」를 펴냄.

▲趙誠愛(68년 美大卒·화가)=오는 4월28일 논현동 샘화랑에서 「조성애 판화개인전」을 개최.

▲金榮柱(68년 商大卒·三和회장)=지난 2월21일 한국신발수출조합 정기총회에서 한국신발산업협회 초대회장으로 선임됨.

▲李孝益(68년 經營大學院卒·三益악기회장·經營大學院 同窓會長)=독일에서 개최된 프랑크푸르트 악기쇼와 악기업체 현황을 돌아보고 2월10일 귀국.

▲孫智烈(69년 法大卒)=지난 2월11일자로 法院行政處 법정국장에서 議政府支院長으로 전보.

▲池晟宇(70년 法大卒)=지난2월3일 서울시경찰국對共1課長에서 서울北部경찰서장으로 영전.

▲金漢坤(71년 行政大學院卒·本會理事)=지난2월13일 농림수산부 기획관리실장에서 제2차관보로 전보.

▲愼重大(72년 法大卒)=지난 2월14일 내무부장관비서관에서 내무부재정국 공기업과장으로 영전.

▲高鉉旭(72년 商大卒·慶南大 교수)=지난3월7일 同校 기획실장에서 국제학술교류위원장에 임명됨.

▲表三洙(74년 工大卒)=미국 켄터키대학 조교수로 재직하다가 최근 삼성 종합기술원 연구위원(이사)으로 부임.

▲車仁濬(77년 醫大卒·

▲申成寶(89년 行政大學院卒·서울地檢증거물과장)=오는 16일 法務部연수원서 초임檢事를 대상으로 과학수사기법(거짓말탐지기 활용법등) 특강을 갖는다.

掲示板

結婚

同窓會館 冠岳臺

△나호진군·송복자(88년 音大卒)양=4월3일 14시.
△송영의(90년 人文大卒)군·이승재 양=4월5일 11시30분.
△이강은(88년 農大卒)군·강윤주 양=4월5일 13시.
△이경휘(88년 工大卒)군·최귀영양=4월5일 14시30분.
△강대진(90년 獸醫大卒)군·정상희(88년 獸醫大卒)양=4월6일 12시.
△주영철(83년 工大卒)군·박한숙양=4월6일 13시30분.
△이철신(87년 工大卒)군·이현경양=4월7일 14시.
△김이봉(87년 師大卒)군·조진희양=4월7일 15시.
△노승규(86년 工大卒)군·김영선양=4월9일 13시.
△현형섭(88년 自然大卒)군·강미선양=4월10일 12시30분.
△유승우(89년 人文大卒)군·홍선우(85년 醫大卒)양=4월13일 11시.
△이효형(88년 工大卒)군·서미숙양=4월13일 12시30분.
△박병철(農大大學院 재학중)군·방미란(農大大學院 재학중)양=4월13일 14시.
△윤대성(86년 自然大卒)군·민상미양=4월13일 15시30분.
△표명영(88년 工大卒)군·이승민양=4월14일 13시30분.
△신영진(85년 社會大卒)군·이현선양=4월14일 15시.

신임 金洪洙 大韓辯協회장

"辯護士는 奉仕자세가 중요"

모교에 「正義의鐘」도 기증

同門을 찾아서

지난 1월23일 大韓辯護士協會의 36대회장에 선출돼 앞으로 2년간 在野 法曹界를 이끌어 가게된 金洪洙(47년 法大卒)동문은 『舊態를 벗어 던지고 화려한 말보다는 행동으로 이루어 가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취임소감을 대신했다.

평남 成川이 고향인 金동문은 49년 제3회 조선辯試에 합격한뒤 檢事생활을 거쳐 61년 변호사로 개업했으며, 東國大 법정대 교수와 辯協 인권위원·공해대책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司試정원감축 ▲변호사법 개정을 통한 辯協자치권 획득 ▲사건브로커개입 등 깨끗지 못한 수임관행 근절등을 변협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당면과제로 꼽았다. 특히 사법시험 정원감축을 놓고 빚어지는 논란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기득권 보호의 차원으로 오해할 수도 있지만 行試도 2백50명 선에서 선발하는 판국에 在曹에서 소화도 못할 정도로 선발을 해놓고는 판검사에 임용되지 못한 사람이나 변호사가 된다는 식의 현실을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金동문은 辯協에 특별위원회를 신설,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그는 최근 논의가 되고 있는 법조一元化문제와 관련 『英美法 개념하에서는 재야에서 충분히 법조경륜을 닦은 후에 재조에 영입되는 것이 통념인데, 독일식 법체계를 준용하고 있는 우리 현실은 단순히 시험이라는 과정만을 거쳐 재관업무에 임하다 보니 갖가지 불합리가 도출되고 있다』며 『유사이래 모든 제도나 인습의 옳고 그름은 역사적으로 증명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놓고 볼때 3~4백년 전부터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온 영국의 제도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진지하게 음미해볼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金동문은 法大 1회로서 法大동창회장을 지내던 56년 당시 母校개교10주년을 맞아 『정의의 종』을 기증한 장본인이다. 그 자신 『당시 李대통령의 3선개헌에 반발하는 의식이 담긴것』이라고 말하듯 그후로도 이 종은 유신시절에는 창고에서 잠을 자야 하는등 시대의 명암을 반복해주는 증표로서 현재는 法大를 상징하는 기념물로 法學館앞에 세워져 있다.

그는 현재 변호사의 55%가량이 서울大 출신이며, 在曹에도 70%가량이 동문들인데, 스스로를 엘리트란 자의식에 빠져 현실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좀더 남을 위해봉사하려는 자세가 아쉽다고 한다.

재임중 자유사회의 성취를 위해 바람직하지 못한 요소가 만연해있는 在曹의 비판자역할을 자임하겠다는 金동문은 在野의 혼탁도 결국은 우리 법조계가 근원적으로 치유해야 할 것들을 치유하지 못한데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또 재임기간중 변협업무에 전념하기 위해 일체의 사건을 맡지않겠다고 밝혔다.

입만가지고 한몫하려는 유형의 사람들을 싫어한다는 金동문은 어릴적 한문공부를 하면서 『亂世의 선비는 落鄕하라』는 말처럼 우여곡절의 최근세사를 살아오면서도 비정치적인 삶을 견지하면서 심지어는 신문조차 보지않았을 때가 있었다고. 때문에 그를 아는 사람들은 그의 이번 출마를 놓고 의아해하며 당선결과를 「異變」이라고까지 표현했는데, 金동문은 『권력과 金權에 결탁하지않고 살아온 법조인으로서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다는 것을 긍지로 생각한다』고 말한다.

부인 金英淑여사와의 사이에 3남3녀를 둔 金동문은 金鍾根 4·5代 변협회장, 金甲洙前대법관, 金疇洙연세大법대학장이 각각 장인·처남·實弟인 법조가문을 이루고 있다.

아마초단의 바둑실력을 갖고 있는 金동문은 법조인들의 골프친목회인 三士會·반도회 등에 속해 주1회정도 필드를 찾는것도 생활의 활력소가 된다고한다.

〈金庚勳 기자〉

▲金浩根(54년 工大卒)=지난 2월28일자로 삼척공업전문대학 학장에 임명됨.

▲鄭厚燮(54년 農大卒·母校 農大교수)=지난 2월23일 롯데호텔에서 벼도열병에 관한 연구에 기여한 공로로 제1회 聲至학술상을 수상.

▲金在恩(54년 師大卒·梨花女大교수·本會理事)=지난 3월1일 梨大 敎育大學院長에 취임.

…계적인 명성을 가진 연구소다.

▲金潤慶(57년 法大卒·前서울고법원장·本會理事)=지난2월21일 서초구 서초동 동명빌딩 302호에 변호사사무실 개업.

▲裵渡(57년 法大卒·동양폴리에스터社長·本會理事)=지난 2월20일 효성그룹 종합조정실社長직을 겸임.

▲李洪九(57년 法大·前통일원장관·本會理事)=지난 2월28일자로 駐英대사에 임명됨.

…大卒·…렌트카 代表·本會理事)=지난 2월26일 전국대여자동차사업조합 정기총회에서 이사장으로 피선됨.

▲尹大郁(62년 文理大卒)=지난2월20일자로 油公전무에서 油公아코化學 사장으로 승진.

▲曺圭一(62년 文理大卒)=지난2월13일 농림수산부제2차관보에서 기획관리실장으로 전보.

▲趙英吉(62년 文理大卒·韓國觀光公社社長·本會理事)=최근 在京 계성고등학교총동창회 회장으로 선출됨.

…됨.

▲吳昌圭(65년 商大卒)=지난3월14일 한국IBM 부사장에서 대표이사 社長으로 승진.

▲姜玹中(66년 法大卒·前민사지방법원 부장판사)=지난2월28일 서초동 칠보빌딩 303호에 변호사사무실 개업.

▲羅禎煥(66년 師大卒·亞南정밀부회장·本會理事)=지난3월9일 서울가든호텔에서 고성능 카메라인 F601D의 생산시판을 기념해 신제품발표회를 가짐.

…인제대교수)=지난 3월1일 同校 대학본부 기획실장에 임명됨.

▲林承達(77년 環境大學院卒)=지난 3월1일자로 강릉大 사회과학대학장으로 피선.

▲曺永昆(81년 法大卒)=지난 3월2일자로 법률구조공단대구지부소속 변호사에서 檢事로 임용됨.

▲金泰範(85년 法大卒)=지난 3월4일 대전시 중구 선화3동 192-12에 변호사사무실 개업.

▲崔允姬(86년 法大卒)=지난 3월2일자로 현역검사로서는 두번째로 여성검사로 임용됨.

…시.

△서경윤(90년 農大卒)군·윤혜경양=4월20일 11시30분.

△최윤식(84년 農大卒)군·이혜정양=4월20일 14시30분.

△이현관(87년 自然大卒)군·윤지원양=4월20일 16시.

△오억수(86년 農大卒)군·한인옥양=4월21일 10시.

△이종면(83년 工大卒)군·김경숙양=4월21일 11시30분.

△박찬수(90년 社會大卒)군·박정옥(88년 人文大卒)양=4월21일 13시.

△임영기(85년 師大卒)군·전예경양=4월21일 14시30분.

△이승익(91년 工大卒)군·김용임양=4월24일 11시30분.

△윤상기(87년 農大卒)군·민경애양=4월24일 13시.

△손문규(90년 保健大學院卒)군·송경임양=4월27일 11시.

△정도회(89년 工大卒)군·김수진양=4월27일 12시30분.

△조만석(88년 人文大卒)군·채진숙(89년 師大卒)양=4월27일 14시.

△박찬중(87년 經營大卒)군·김효영(87년 師大卒)양=4월27일 15시30분.

△고완석(88년 美術大卒)군·김금숙양=4월28일 11시.

△이상무(89년 農大卒)군·신경희양=4월28일 12시30분.

△도용균(獸醫大 재학중)군·최혜선양=4월28일 14시.

△감형태(85년 自然大卒)군·심동희양=4월28일 15시30분.

訃音

▲金于鉉(57년 師大卒·파나여행사 會長·本會理事)=지난 3월10일 오후8시19분 서울대병원서 숙환으로 별세.

金동문은 師大 국어과 동문회장을 역임하며 동창회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

停年退任교수 열세분의 얼굴

반평생을
母校 강단에 바쳐온
열세분의 교수가 지난 2월 28일
정년퇴임했다. 學問연구와 後學육성에
전념해온 元老교수의 노고를 치하하고
이분들의 헌신의 뜻을 기리는 의미에서
한마디의 말씀을 받아
싣는다.

董德模 교수
〈社會大·外交學〉

66년 法大에 부임한 이후 한국연구원장등을 역임하면서 국제정치와 역사를 잇는 전공분야인 근대 한국외교사와 동북아 국제관계사 분야에서 탁월한 저술을 남겼다. 다시 태어난다 해도 學者의 길을 걷고싶다는 董교수는 대학교육에 있어서 지식위주의 교육보다 정신적·도덕적 인격함양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咸南 北靑출신으로 美콜로라도大에서 哲學박사 학위를 취득한 董교수는 요즈음 교육풍토가 인격도야에 앞서 너무 기술분야에 치중하는 관계로 전통적 사제관계가 소멸되어지는것 같다며 사제관계의 재정립을 강조했다.

知識위주교육 止揚돼야

崔弘基 교수
〈社會大·社會學〉

52년 文理大 졸업후 68년부터 모교에 재직해온 崔교수는 가족사회학 및 농촌사회학 분야에서 많은 연구업적을 쌓아온 사회학자이다. 『오직 전공분야에 대한 애정때문에 한평생 일관할 수 있었다』는 崔교수는 전통사회에 대한 자료들이 부족한 상황에서 귀중한 호적자료들을 발굴, 집대성한 「한국호적사연구」를 비롯하여 가족및 친족제도에 관한 다수의 논문들을 발표함으로써 전통사회의 원형을 밝히는데 커다란 기여를 했다. 평소 학생들과 잘 어울려 학생들 사이에서 「후덕한 아버지」로 통하기도 했다.

農村사회학 분야 큰 業績

魏祥奎 교수
〈工大·航空工學〉

50년 모교 항공공학과 졸업후 우리나라 항공우주공학에 대한 교육발전과 연구정착에 개척자적인 역할을 담당해온 魏교수는 『항공공학기술의 계속되는 발전속에서 정년을 맞고보니 아쉬움이 앞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모교에서의 공로 뿐만 아니라 타대학 관련학과의 태동을 지원하고 산업체에 대한 기술지원 및 국내 항공우주 관련 연구소의 발전에도 깊이 영향을 미쳐왔다. 승마, 수영, 테니스등 각종 취미생활의 연구활동의 활력소가 됐다는 魏교수는 모교의 발전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다며 후학들의 정진을 기원하기도.

他大 항공과 新設에도 큰몫

玄在善 교수
〈農大·農生物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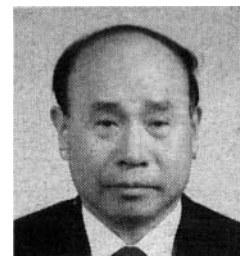
평북 定州生인 玄교수는 47년 모교를 졸업하고 56년부터 모교강단에 서오면서 잠사화회·농업과학협회장등을 역임하는 한편 한국방송통신대학 농학과장 재임시에는 이 학과 창설초기의 발전에 기여했다. 특히 그의 「솔나방의 개체군 동태학적 연구」는 산림병해충 발생예찰사업 개시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기도했다. 지금까지 모아둔 자료중 후학들에게 필요한 것은 도서관에 기증할 예정이라는 玄교수는 농업기술의 변천과 해충발생상의 복잡화에 관심을 갖고 작물을 중심으로한 전체 해충류의 경제적 평가를 총체적으로 수행하기도 했다.

農業科學協會長등 역임

郭潤直 교수
〈法大·私法學〉

47년 모교를 졸업하고 제7회 고등고시 行政科에 합격한 후 58년 모교에 부임한 이래 오늘까지 우리 民法學의 발전에 이바지해온 郭교수는 그간 26권의 저서와 76편의 법률논문을 펴내는 등 우리 민법학의 기초를 다져왔다. 발표된 논문들은 法務실무자에게 많은 영향을 끼쳐 그간의 판례형성에 큰 역할을 해왔는데, 저서 「민법강의」 시리즈는 한국법학도의 필독서로 돼있다. 재직기간을 『연구와 강의에 열중하던 나날』이었다고 회상하는 郭교수는 77년 자신이 결성한 「민사판례연구회」의 회장직을 맡아 보면서 법학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著書 26권·論文 76편 발표



李榮培 교수
〈工大·機械設計學〉

모교 졸업후 66년부터 모교에서 주로 기계공작, 금속재료학을 강의해온 李교수는 『공대 초창기에 변변한 실험기구가 없어 데이타측정이 제대로 되지않아 직접만들기도 했다』고 회상하면서 『기계설계학의 기초는 수학』이라고 강조한다. 건설부 중기형식심의위원, 한국기능올림픽위원회 기술위원 등을 지낸 李교수가 재직중 기억에 남는 일은 보신각 새종의 중주사업이었다고. 퇴임후에는 공학적 측면에서 「한국금속공업계 발달사」를 쓰는데 매달리겠다는 李교수의 좌우명은 「늦더라도 끈기 있게」.

기계설계학 基礎는 數學

李樂周 교수
〈工大·航空工學〉

한국에서의 공업역학에 대한 교육의 정착과 학문발전의 개척자적 역할을 수행해온 李교수는 51년 모교 졸업후 항공과로 적을옮겨 공대학장등을 역임하면서 특히 단성안정본및 비선형진동론에서 많은 연구업적을 남겼다. 한국항공우주학회장을 역임하기도한 李교수는 『여러모로 혼란상황에 처한 우리의 현실을 서울대학교가 주체가 되어 타개해야 한다』고 역설하기도. 특히 오늘날 工大행정 체계의 합리화를 다진 李교수는 퇴임후에도 한국직업훈련대학교의 학장으로서 후학지도에 전념하고 있다.

工業力學교육 정착 시켜

金英海 교수
〈齒大·齒醫學〉

48년 齒大를 졸업하고 58년부터 모교강단에 서온 金교수는 81년부터 85년에 걸쳐 치과대학장으로 재직하면서 모교의 발전에 크게기여했으며 대한치과보존학회 회장으로서 우리나라 치의학발전에도 적지않은 흔적을 남겼다. 의사로서 제1의 신조를 「奉仕정신」이라고 꼽는 그는 『항상 환자의 고통을 곧 나의 고통으로 생각할 것』을 후학들에게 당부하기도. 한편 다수의 학술논문을 국내외에 발표하는등 후진교육과 연구활동에 헌신해온 金교수는 퇴임에 관계없이 齒醫學발전을 위해 계속 매진하겠다고.

医師는 봉사정신이 제일

李商萬 교수
〈自然大·地質科學〉

50년 文理大를 졸업하고 63년부터 모교에서 암석연구와 後學양성에 전념해온 李교수는 국토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변성암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기반암의 지질계통을 확립했다. 국내 암석학계의 선구자로 자타가 공인하는 李교수는 그간 대한지질학회장을 역임하는등 각종 학회활동과 아울러 세계 구석구석을 돌면서 풍부한 자료와 경륜을 쌓아왔다. 또한 고온 고압의 변성광물 변이에 관한 실험과 이론전개를 통해 지온지압계의 모델을 완성하고 변성대 분해이론을 정립, 아시아 변성상도를 완성하기도 했다.

국내 岩石學界의 선구자

沈貞燮 교수
〈工大·工業化學〉

51년부터 모교에 몸담아 오면서 일찍이 공업화학이라는 학문의 중요성을 인식, 75년도에는 전국 17개 전문대학에 공업화학과가 생기는데 산파역을 했다. 특히 국내외에서 발표한 첨단과학분야인 感光性 고분자에 관한 연구논문은 도합 16편에 이르는 체계적인 것으로 독보성을 인정받고 있다. 沈교수는 환경안전연구소장직을 맡으면서 OECF차관을 얻어내 연구소 연구기재를 도입, 연구뿐 아니라 모교발전에 큰 기여를 하기도. 학술원 정회원으로 앞으로도 化學발전에 매진하겠다고. 경남 마산생으로 「신제유기화학」 등의 저서가 있다.

感光性 고분자연구 獨步的

吳鳳國 교수
〈農大·畜産學〉

한국가금학회장, 농업과학협회장, 동대학장등을 역임한 吳교수는 어릴때 집에서 농사를 지으며 닭을 많이 키운연유로 닭을 전공하게 된것 같다고 밝힌다. 『익힌 지식과 기술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吳교수는 실지로 그 자신 38년 양계강습회를 열어 오늘날 양계협회로 발전시킨 장본인이기도 하다. 학술활동면에서도 1백여편의 학술논문 외에도 26편의 전문서적을 저술했고, 학술원 정회원으로 세계가금학회 아시아·태평양지역 회장직을 수행하는 등 가히 家禽學에 있어서 태두의위치를 점하고 있다.

家禽學의 태두로 자타공인

朴泰植 교수
〈農大·林學〉

56년 모교에 부임한 이래 임업·농업분야의 활발한 학술활동과 국내임업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온 朴교수는 『나무를 땔감으로 쓰던 시절 학교 연습림을 지키기 위해 교수와 학생이 밤새워 경비를 서던 일이 인상깊다』며 퇴임후에는 현재 부회장을 맡고 있는 한국 임정연구회의 일을 계속하며 조선末부터의 林政史를 정리할 계획이라고. 그간 한국임학회장, 농업교육학회장등 여러 학회의 중요 직책을 맡아 학술발전을 선도하는 한편 임업정책수립에도 적지않은 기여를 해왔다. 산림경제학·임업경영학등의 저서가 있다.

「한국林政史」 정리할 계획

李長洛 교수
〈獸医大·獸医學〉

수의약리학에 관한 다수의 저서를 남겼으며 85년부터 학술원 정회원으로 활동하여 학술진흥에 공헌해온 李교수는 한국수의학교육협의회를 창립하는 한편 전국 7개대학의 수의학과 교과과정을 처음으로 통일한 장본인이다. 한편 수의과대학장 재임시에는 매년 5월 마지막 토요일을 「모교 찾는날」로 정해 동문들의 모교에 대한 관심을 적극 유도하기도. 최근 발간한 동물약품해설등 학술서적 이외에도 「한국땅에 묻히리라」 「복지국가 덴마크」 등 心像이 깃든 작품들을 펴내기도 했다. 특히 동창회의 발전에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있다.

同窓會일에 남다른 열정

年會費 납주신분

〈2월18일—2월28일〉

人名밑 원내 숫자는 卒業年度。

理事

◇家政大學

▲任仁順(62) 서울대병원

◇工科大學

▲全兢烈(48) 유신설계공단회장
▲姜信珪(58) 현대녹음대표
▲桂 澯(60) 동국제강부사장
▲具琡會(61) 국제산업정보연구사장
▲權淳永(56) 삼성BP화학사장
▲金 演(56) 아주회금공업사사장
▲金德洙(55) 장천화학공업사사장
▲金炳珍(50) 대림엔지니어링사장
▲金相演(51) 한국에너지협회상임이사
▲金聖中(66) P&P엔지니어링사장
▲金定萬(65) 효동개발사장
▲金正玉(60) 철도청시설국장
▲金鍾憲(58) 선경건설사장
▲柳基赫(69) 한국통신기술전산실장
▲馬奎河(60) 기아전기사장
▲朴相鎬(67) 럭키유화사장
▲朴宜鉉(57) 풍림산업부사장
▲朴濟秉(56) 대영사사장
▲朴昌淳(68) 강신산업사장
▲白性基(60) 동국합섬사장
▲邊勝鳳(61) 한국전기연구소부장
▲徐敏錫(66) 동일방직사장
▲徐廷旭(57) 한국전기통신공사품질보증단장
▲徐廷勳(55) 동명공사사장
▲成樂常(51) 前동아건설고문
▲成樂辰(60) 동원탄좌사장
▲宋在奎(59) 대한석탄공사안전본부장
▲申東植(55) 한국해사기술이사장
▲嚴寀永(60) 건설엔지니어링사장
▲吳世胤(64) BAFH KOREA사장
▲尹同燮(65) 한양화학부강공장상무이사
▲李文贇(60) 유니시스상무이사
▲李相鎬(70) 서호전기사장
▲李永鎬(56) 삼화페인트공업부사장
▲李元煥(53) 연세대교수
▲李膺孝(55) 한국데이타통신사장
▲李鍾玹(51) 유진기연사장
▲李柱範(56) 고려화재해상보험회장
▲李柱先(68) 제우기계사장
▲李春林(53) 현대종합상사회장
▲李熹鍾(57) 금성산전사장
▲張炳夏(58) 한-인니자원개발전무이사
▲張學淳(60) 삼양정수공업회장
▲鄭玉恢(59) 부곡온천호수장사장
▲鄭寅曄(50) 강원산업부회장
▲曹圭大(59) 경인상사사장
▲趙陽來(64) 동양화학공업상무이사
▲表相基(65) 상지상사사장
▲韓泰熙(50) 금성사사장
▲許 塤(51) 삼호엔지니어링사장
▲玄熹憲(59) 최신물산사장

◇農科大學

▲閔寬植(40) 아세아정책연구소소장
▲朴贊英(48) 前풍한발효전무이사
▲沈相獻(49) 삼호화공기계사장
▲金南龍(57) 前한국낙농육우협회전무이사
▲金祥源(56) 대법원대법관
▲金周浩(59) 前농림수산부장관
▲宋熙準(61) 해운산업연구원장
▲沈完祚(61) 덕은사장
▲沈載益(63) 충북제사사장
▲元昌南(62) 한국삼공이사
▲俞 煌(60) 제일모피사장
▲李致燮(62) 한국네슬레부사장
▲田用和(51) 前충남농촌진흥원장
▲鄭潤煥(62) 은성화학공업사장
▲韓相昱(61) 농업진흥공사사업본부장
▲許宗觀(55) 前한국냉장감사

◇文理科大學

▲高一男(60) 고려무역대표이사
▲金 建(52) 한국은행총재
▲金 駒(63) 금동교역상사사장
▲金德龍(61) 국회의원
▲金相應(64) 삼양상사사장
▲金順綱(53) 서통사장
▲金容九(61) 서울대교수
▲金佑炫(61) 기아기공상무이사
▲金洪錫(49) 고려증권고문
▲文熙和(60) 한국생산성본부장
▲朴相大(60) 서울대교수
▲朴泰煥(58) 고려열화사장
▲方孝宣(55) 성광사사장
▲白桓基(65) 월간인물계대표
▲辛建鎬(57) 한국냉장사장
▲申貞休(57) 문화방송전무이사
▲安秉華(58) 한국전력공사사장
▲梁圭模(65) 진양회장
▲嚴俊傑(65) 우진직물회장
▲劉亮秀(62) 동아콘설런트사장
▲尹在天(72) 성보실업사장
▲尹天柱(47) 前서울대총장
▲李康植(59) 공보처차관
▲李文弘(54) 선일상선상임고문
▲李炳祥(65) 코오롱상무이사
▲李秀洪(59) 한국문화협회이사장
▲李元洪(52) 前문교부장관
▲李漢晟(59) 전북전은리스사장
▲張成周(71) 삼호특수사장
▲全遇億(63) 대한항공이사
▲鄭勳沐(60) 현대건설사장
▲曺圭光(48) 헌법재판소소장
▲崔昌潤(66) 공보처차관
▲韓甲洙(53) 한국산업연구원장
▲韓萬運(49) 前인하대교수
▲洪斗杓(61) 한국전매공사사장
▲洪鍾華(51) 홍원제지사장
▲黃善必(64) 前문화방송사장
▲張河龜(46) 종로서적센타회장

◇美術大學

▲郭元模(60) 중앙대교수
▲閔哲泓(58) 서울대교수
▲白泰昊(51) 이화여대산업미술대학원장
▲李南圭(57) 공주사대교수
▲趙英濟(58) 서울대교수
▲韓道龍(58) 홍익대교수
▲文學晉(52) 예술원정회원
▲徐世鈺(50) 서울대교수

◇法科大學

▲崔泳謹(48) 국회의원
▲姜在涉(74) 국회의원
▲權寧檜(59) 국민리스사장
▲權五潤(60) 제양사장
▲金 裕(65) 한미은행여신담당이사
▲金公植(59) 변호사
▲金達植(57) 변호사
▲金德柱(56) 대법원장
▲金東圭(58) 국회의원
▲金斗喜(62) 법무부차관
▲金汝熙(59) 헌법재판소재판관
▲金永均(59) 변호사
▲金玉照(63) 보훈처차관
▲金容喆(50) 前대법원장
▲金仁柱(72) 한국종합금융상무이사
▲金泰鎬(61) 국회의원
▲金許男(52) 송도상고교장
▲盧信永(54) 前국무총리
▲文洪球(49) 나라계전회장
▲朴永泰(55) 한일은시스템사장
▲卞圭七(62) 럭키금성상사사장
▲徐載寬(56) 후지필름판매사장
▲徐廷信(62) 대검찰청차장
▲宋彦鍾(60) 전남도지사
▲申長淳(51) 유정상사사장
▲朴成達(60) 감사위원
▲安明基(56) 변호사
▲安秉洙(48) 변호사
▲安文萬(60) 대법원대법관
▲吳成煥(57) 변호사
▲柳哲鎬(56) 태평양증권사장
▲尹元錫(63) 경남기업사장
▲李康煥(58) 대한교육보험사장
▲尹東潤(61) 체신부기획관리실장
▲李東熙(61) 한국관광협회상근부회장
▲李珍雨(56) 국회의원
▲李泰熙(64) 변호사
▲李海遠(55) 한국우드워드디커스사장
▲任瑞彬(55) 세화회계법인공인회계사
▲林寅澤(63) 교통부장관
▲張在植(56) 한국조세문제연구소소장
▲鄭大哲(67) 국회의원
▲鄭石模(52) 국회의원
▲鄭麟永(54) 새한종합금융사장
▲鄭勳甫(61) 풍산사장
▲陳永培(61) 쌍용양회공업부사장
▲韓鳳洙(56) 대한상사중재원원장
▲玄敬大(64) 민주평통사무총장
▲洪承采(58) 한국컴퓨터사장
▲洪寅基(60) 동서증권사장

◇師範大學

▲李鍾根(39) 중앙교육진흥연구소장
▲金商俊(52) 서울시교육감
▲金年植(55) 서울大교수
▲盧載敏(66) 신일축산공사사장
▲閔泰益(65) KAIST연구실장
▲孫晋奭(55) 오아시스레코드사장
▲辛世浩(60) 한국교육개발원장
▲尹鳳連(34) 홍지유치원장
▲尹龍赫(64) ㈜대성사장
▲李容勳(59) 서부교육구청장
▲李元淳(49) 서울大사대학장
▲丁俊赫(78) 한주투자사장
▲崔洛基(65) ㈜천재교육이사
▲黃哲秀(51) 국회의원

◇商科大學

▲金鍾大(41) 대전피혁회장
▲沈遠澤(43) 오류농장회장
▲姜晋佑(56) 롯데햄우유사장
▲桂忠武(62) 한국석유개발공사사업본부장
▲高光直(65) 전북은행장
▲權毅宅(60) 대한석탄공사부사장
▲金 憲(56) 한전물산사장
▲金基錫(63) 오양수산전무이사
▲金相勳(60) 前현대강관사장
▲金新正(59) 두산전자부회장
▲金榮煥(59) 전열화학공업회장
▲金雄烈(53) 유성전기금속사장
▲金允煥(60) 고려검정사장
▲金鍾昱(62) 전방부사장
▲金恒德(65) 유공사장
▲金炫植(56) 동아출판사사장
▲明東根(52) 해동상호신용금고고문
▲文 權(59) 럭키금성상사부사장
▲文鎭錫(61) 연합물산사장
▲朴斗根(57) 경일화학대표이사
▲朴聖麒(61) 한국바이린사장
▲朴秀煥(59) 럭키금속부사장
▲朴榮福(63) 오양수산상무이사
▲朴態緖(61) 삼성석유화학부사장
▲裵柱元(59) 아산해운사장
▲孫錫來(51) 대한교육보험전무이사
▲宋彰鎬(56) 송우무역사장
▲申熙澈(63) 금강제화사장
▲沈載榮(64) 미쉐린코리아타이어사장
▲安承喆(60) 중소기업은행장
▲俞炳憲(61) 한불종합금융부사장
▲俞忠植(61) 동아제약부사장
▲尹世極(51) 정일개발사장
▲尹永錫(64) 前대우조선사장
▲李甲植(53) 유양기업사장
▲李康秀(55) 증권감독원상임위원
▲李光壽(54) 서울신탁은행장
▲李九容(65) 동산토건부사장
▲李揆成(63) 前재무부장관
▲李德勳(70) 덕우상사사장
▲李滿基(57) 한양증권사장
▲李萬秀(62) 대한교육보험전무이사
▲李鳳瑞(55) 국제화재보험고문
▲李佑永(64) 우영상사사장
▲李一薰(60) 동부투자금융사장
▲李鍾基(61) 중앙일보사부회장
▲李俊容(60) 동아제분사장
▲李弼坤(65) 삼성물산사장
▲張明燮(53) 경수투자금융사장
▲張世元(62) 동양나이론전무이사
▲田永秀(55) 주택은행여의도지점장
▲全昌秀(61) 한일개발부사장
▲鄭仁植(64) 대림산업부사장
▲鄭燦燮(55) 대륙상운대표이사
▲趙 喆(48) 제일화섬회장
▲崔榮喆(63) 한국극동쉘석유상무
▲崔震碩(62) 한국가스안전공사이사장
▲崔海殷(56) 대림통상전무이사
▲韓基徹(56) 코스모스악기사부사장
▲韓丙武(65) 삼화향료사장
▲許南珏(60) 삼양통상회장
▲許盛鏞(58) 상산소재대표이사
▲黃昌基(58) 한국외환은행장
▲黃昌學(59) 한진사장
▲沈大平(66) 국무총리행정조정실실장

◇獸醫科大學

▲金萬泳(54) 경미농장대표
▲李衡雨(60) 李수의과의원
▲崔泳一(56) 기독교방송상무이사

◇藥學大學

▲許 溶(47) 삼일제약사장
▲高羲益(33) 삼일제약회장
▲金光淳(63) 청계약품전무이사
▲金奎鎬(61) 새서울약국
▲金永銓(53) ㈜두방사장
▲金長淑(58) 국회의원
▲金鎭宇(58) 신림당약국
▲朴 烈(61) 한국쉐링부사장
▲安義燦(57) 부광약품부사장
▲全鳳侃(60) 태평양제약전무이사
▲全用東(47) 건풍제약상무이사
▲鄭之碩(64) 한미약품부사장
▲崔允煥(60) 진양제약사장

◇音樂大學

▲金明珠(57) 주부

◇醫科大學

▲崔圭完(61) 서울大교수
▲李寧均(44) 부천세종병원
▲李永好(45) 이영호이비인후과
▲朴永夏(50) 을지병원이사장
▲李惟信(49) 서울大병원피부과
▲金基永(50) 예산제일병원장
▲金英均(49) 서울大병원비뇨기과
▲金鎭福(58) 서울大병원일반외과
▲金鎭永(56) 서울大병원이비인후과
▲盧東斗(51) 서울백제병원장
▲盧若愚(50) 노약우정형외과의원
▲文命相(57) 강남성모병원정형외과
▲文炯魯(52) 서울大병원소아과
▲閔永玉(50) 진주고려병원
▲宣明勳(57) 부산백병원
▲成基浩(66) 한일병원외과과장
▲沈英輔(61) 심영보·홍자선의원장
▲吳仁赫(52) 오인혁내과
▲李敬智(53) 성일산부인과의원장
▲李奎恒(60) 안양신경정신병원이사장
▲李吉女(57) 인천중앙길병원이사장
▲李承徽(54) 경기후생병원장
▲李鼎煥(56) 중앙병원장
▲李哲濟(58) 이철제안과
▲張敎植(62) 서부병원장
▲趙斗英(61) 서울大병원신경정신과
▲河權益(63) 경찰병원정형외과
▲韓萬青(59) 서울大병원방사선과
▲韓正哲(62) 덕산병원장
▲許 億(60) 고려신경외과의원장

◇齒科大學

▲金東頂(44) 역삼치과의원장
▲金賢九(50) 남문치과의원장
▲高鎭洙(64) 고진수치과의원
▲金正均(65) 김정균치과의원
▲南東錫(65) 서울大교수
▲禹亨植(65) 우치과의원장
▲朱寬哲(65) 의당치과의원장
▲崔旭煥(61) 최치과의원장
▲許姸旭(59) 강성치과의원장

◇大學院

▲俞碩鎭(49) 베드로신경정신과원장

◇經營大學院

▲金仙大(72) 외환은행본점부장
▲金泓植(71) 금보주회장
▲馬雄豪(69) 녹십자의료공업회장
▲朴弘植(71) 前특허청장
▲裵武煥(68) 관동大경상대학장
▲禹德昶(68) 쌍용양회사장
▲李東燁(71) 신용보증기금본부장
▲金煥淙(70) 우영산업회장

◇敎育大學院

▲金炳斗(65) 강원도교육감

◇保健大學院

▲金秀哲(67) 김수철성형외과의원
▲朴南永(60) 국립보건연구원교수
▲李喆玉(74) 인천중앙길병원행정원장
▲全金子(74) 대한간호협회사무총장

◇司法大學院

▲李致浩(70) 국회의원

會費납부에 뜨거운 精誠을…

동문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年會費가 순조롭게 入金되고 있습니다. 뜨거운 정성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회비는 1년에 한번만 납부하시면 되며, 보내주신 회비는 同窓會 발전을 위한 여러가지 사업과 母校支援에 유익하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되도록 앞당겨 내셔서 동창회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會費내역—

一般會員	1만원
理事	5만원
常任理事	10~20만원
監事	30만원
副會長	50만원
會長	100만원

3월말 현재 1億千萬원 入金

工大 法大 商大 등서 많이 내

◇新聞大學

▲金太文(73) 쌍용그룹전무이사 ▲金泰天(70) 대한증권업협회상무이사 ▲尹壬述(69) 前부산일보사장

◇行政大學院

▲金友埠(73) 국민카드수석부사장 ▲金寅東(67) 서울시기획관리실장 ▲申基澈(66) 세풍(주)부사장 ▲申鉉守(70) 신용관리기금이사장 ▲鄭炅謨(67) 해외선박(주)회장 ▲曺相鎬(66) 前체육부장관 ▲崔桂淳(65) 반포산업사장

◇環境大學院

▲尹伯榮(75) 前서울시부시장 ▲尹和一(81) 주태은행지점장 ▲許 完(74) 강동구부청장

一般會員

◇人文大學

▲강인자(86) ▲김성우 ▲김정배 ▲김창환(74) ▲김현권 ▲박명식(81) ▲박성민(87) ▲박진규(83) ▲변원일(76) ▲서정창(83) ▲손동회(86) ▲심양섭(87) ▲염승섭(61) ▲이상오(87) ▲이상흡(78) ▲정희보(78) ▲조동희(87) ▲김광석(89) ▲김종유(89) ▲김부명(87) ▲김동겸(77) ▲김현규(89) ▲김화경(89) ▲김희정(89) ▲범정아(89) ▲승미열(77) ▲안병옥(76) ▲유 진(83) ▲유성덕(89) ▲이준희(89)

◇社會大學

▲고재흥(88) ▲김구연 ▲김수영 ▲김종면(83) ▲김주수(65) ▲김화도 ▲맹주석(85) ▲박 승 ▲박용규(86) ▲박혜선 ▲손희매 ▲신상덕(80) ▲이준일(65) ▲정동현(82) ▲진태환(77) ▲강광일(76) ▲김성수(89) ▲김성진(76)

▲김승탁(83) ▲김정구(76) ▲김창수(77) ▲김태식(82) ▲박정원(83) ▲신웅섭(79) ▲양홍모(82) ▲유채영(76) ▲이연호(85) ▲이영성(83) ▲장병식(77) ▲정재호(77)

◇自然大學

▲구자동(84) ▲권현준(80) ▲김 택(81) ▲김주진(88) ▲김영호(74) ▲김재우(76) ▲남호우(86) ▲박창순 ▲백부기(82) ▲서병진(85) ▲서인실(85) ▲손원호(77) ▲심대섭(76) ▲안태석(76) ▲이순열(83) ▲임하나(86) ▲김 윤(79) ▲김권회(88) ▲김도원(82) ▲김재국(76) ▲김정환(81) ▲노정혜(79) ▲배석용(85) ▲이경주(88) ▲이병홍(76) ▲이원애(76) ▲장천영(83) ▲한상배(76) ▲손용길(82)

◇家政大學

▲고영옥(74) ▲김동희(76) ▲류정희(77) ▲박복순(74) ▲박영애(73) ▲박정희(81) ▲송남순(69) ▲신상순(59) ▲신은철(77) ▲예진회(86) ▲오경숙(82) ▲조영옥 ▲주정일(48) ▲채진미 ▲김은애(75) ▲남궁향미(75) ▲박명희(75) ▲유정순(73) ▲이영숙(76) ▲이형숙(73) ▲조혜성(73) ▲최선혜(73) ▲홍경혜(76)

◇經營大學

▲강종구(87) ▲고상열(85) ▲김기식(86) ▲김윤호(77) ▲김학운(86) ▲문영국(86) ▲박재옥 ▲박정래(76) ▲박진영(86) ▲박태희(86) ▲방성제(86) ▲송규탁(88) ▲신동환(82) ▲신용삼(77) ▲오진환(81) ▲오창호(82) ▲이호창(85) ▲장영철(80) ▲강성구(88) ▲곽수근(77) ▲조용현(77) ▲주정찬(81) ▲현형섭(88)

◇工科大學

▲강 탁(88) ▲강석규(50) ▲강성언(69) ▲강신윤(83) ▲강진수(61) ▲강화모(59) ▲강홍식(58) ▲고재선(52) ▲고항규(72) ▲공인영(81) ▲공태근(65) ▲곽 승(63) ▲구본국(69) ▲권주웅(62) ▲권순룡(81) ▲권익현(73) ▲권태준 ▲권혁무(79)

▲기군도(72) ▲김 철 ▲김갑손 ▲김경기 ▲김경덕(63) ▲김경석(82) ▲김경훈 ▲김광세 ▲김광일(85) ▲김광태(84) ▲김규만 ▲김기현(60) ▲김남석(60) ▲김대규(65) ▲김대균 ▲김대원(86) ▲김덕삼 ▲김덕영(47) ▲김동길 ▲김동웅(72) ▲김두천(67) ▲김명근(86) ▲김무기(58) ▲김무언 ▲김민식(75) ▲김병규(50) ▲김병옥(67) ▲김병웅(66) ▲김병찬(47) ▲김부기 ▲김생빈(58) ▲김석준(73) ▲김성진 ▲김세종(64) ▲김시환(75) ▲김신정(65) ▲김영치(64) ▲김영화(63) ▲김용대(76) ▲김용부(58) ▲김용회(58) ▲김운창(63) ▲김웅기(65) ▲김웅수 ▲김원만(53) ▲김원일(67) ▲김윤규 ▲김을권(61) ▲김의박(65) ▲김의수(56) ▲김인영(76) ▲김인종(64) ▲김일두(64) ▲김일진 ▲김재선(56) ▲김재창(69) ▲김재환(58) ▲김정길 ▲김정원(70) ▲김정진 ▲김정호(51) ▲김종국(65) ▲김종석(62) ▲김종완(84) ▲김종옥(65) ▲김종진(64) ▲김지섭(58) ▲김진만(58) ▲김찬식(65) ▲김채원(67) ▲김천주(64) ▲김철수 ▲김치홍 ▲김태업(72) ▲김태영 ▲김한선(76) ▲김현우(88) ▲김현진(60) ▲김형진(55) ▲김호성(70) ▲김회수(62) ▲나승호(87) ▲남 홍(64) ▲남공회(57) ▲남기동 ▲남부희(74) ▲남선우(60) ▲남봉호(85) ▲남준우(56) ▲남화우(58) ▲노병기(76) ▲노승탁(66) ▲노정규(66) ▲노철균(74) ▲류구수(71) ▲문정규(56) ▲문철회 ▲민병성 ▲민정식(60) ▲박 찬(88) ▲박남규(86) ▲박노상(61) ▲박대복(67) ▲박두화(55) ▲박민철(52) ▲박병국 ▲박성양 ▲박승덕(64) ▲박승빈 ▲박신규(67) ▲박영회(61) ▲박용운(85) ▲박우제(56) ▲박원규(52) ▲박유선 ▲박윤영(84) ▲박인섭(77) ▲박진선 ▲박철우(76) ▲박형호(58) ▲박훈신(70) ▲박회규(58) ▲박희석(57) ▲방병선(83)

▲백남수 ▲백성기(68) ▲백수태 ▲백승욱(62) ▲백완규(56) ▲변재완(83) ▲부창렬(81) ▲서동균(69) ▲서정한(59) ▲석영대(60) ▲석회호(59) ▲설원회 ▲석인환(85) ▲설화인 ▲손 욱 ▲손경엽(69) ▲문종규(64) ▲송대호(72) ▲송병호(85) ▲송영회(52) ▲송재실(72) ▲송종석 ▲송춘환(66) ▲신동성(68) ▲신동엽(87) ▲신명환(60) ▲신양호(75) ▲신윤하(68) ▲신춘식 ▲신현식(54) ▲신형순(82) ▲신홍범(79) ▲심재화(58) ▲안동원(65) ▲안병휘(59) ▲안선구(58) ▲안영융(65) ▲안우희(66) ▲안의성(88) ▲안정호 ▲안종길(56) ▲안학수(55) ▲양문현(54) ▲양윤홍(70) ▲어경건(71) ▲여인희(63) ▲염사연(71) ▲오명환 ▲오상현(85) ▲오상호(55) ▲오석동(63) ▲오성환(63) ▲오신남(64) ▲오의환(61) ▲오정환 ▲옥영석(82) ▲왕태형 ▲우상열 ▲위재용(70) ▲유달준(71) ▲유은영(73) ▲윤영수(47) ▲윤재문 ▲윤재복(57) ▲윤종구(82) ▲윤종만 ▲이갑연(87) ▲이경보(50) ▲이광성(70) ▲이규재(71) ▲이덕선(65) ▲이범의 ▲이상형(49) ▲이승옥(82) ▲이예민(50) ▲이의용(61) ▲이인범(56) ▲이인희(86) ▲이재성(46) ▲이정성 ▲이정화(74) ▲이종호(65) ▲이준걸(77) ▲이주의(64) ▲이창범(81) ▲이창순(56) ▲이형복(63) ▲이희수(50) ▲임학규(81) ▲장석주 ▲장진선(66) ▲장철현(62) ▲장홍규(58) ▲정조섭(61) ▲정평근(66) ▲조대성 ▲조수길(57) ▲주 백(59) ▲채호석(48) ▲최도환(68) ▲최형욱(82) ▲한명수(57) ▲한용필(87) ▲함병립(46) ▲홍대형(69) ▲홍찬호(86) ▲황봉식(65) ▲이종덕(49) ▲강대영(66) ▲강동신(69)

▲강봉훈(75) ▲강성안(62) ▲강수춘(78) ▲강한구(71) ▲강홍섭(63) ▲계이길(59) ▲권두섭(61) ▲권형석(66) ▲금동화(73) ▲기우봉(58) ▲김 륜(56) ▲김 윤(71) ▲김강황(75) ▲김계호(58) ▲김규태(83) ▲김기정(68) ▲김대영(75) ▲김동옥(75) ▲김무조(63) ▲김방광(66) ▲김병제(56) ▲김병주(65) ▲김병태(73) ▲김상권(70) ▲김성로(56) ▲김성운(81) ▲김소일(65) ▲김순민(73) ▲김연덕(55) ▲김영진(82) ▲김영철(63) ▲김왕신(77) ▲김원국(50) ▲김윤근(78) ▲김인기(58) ▲김인수(79) ▲김재설(62) ▲김정구(71) ▲김정배(55) ▲김정순(79) ▲김정준(82) ▲김종률(74) ▲김종영(75) ▲김종원(50) ▲김종진(77) ▲김종채(61) ▲김준호(79) ▲김찬호(82) ▲김창의(60) ▲김춘석(60) ▲김충섭(65) ▲김충세(68) ▲김태순(61) ▲김평호(85) ▲김필한(53) ▲김한영(76) ▲김현주(58) ▲김형기(60) ▲김호용(79) ▲김홍식(69) ▲김회정(61) ▲김희국(58) ▲김희범(75) ▲나종태(71) ▲남시도(68) ▲남인호(59) ▲남인회(77) ▲남장수(68) ▲노 훈(63) ▲노정선(66) ▲노주섭(69) ▲노환영(62) ▲명계복(60) ▲문명남(67) ▲문영기(73) ▲문영준(58) ▲문영학(70) ▲문일민(83) ▲문제길(56) ▲박경진(78) ▲박구원(73) ▲박권용(53) ▲박병옥(82) ▲박상표(59) ▲박상호(56) ▲박성현(75) ▲박신구(88) ▲박용규(62) ▲박용남(65) ▲박정도(58) ▲박정웅(65) ▲박찬호(63) ▲박태권(59) ▲박한희(61) ▲박호건(74) ▲박희수(58) ▲방영천(49) ▲배상오(68) ▲배종찬(83) ▲배종호(69) ▲백영현(59) ▲백영현(71) ▲변동필(79) ▲변복수(70) ▲변재황(67) ▲서 구(68) ▲서갑주(69) ▲서병은(62) ▲서상묵(71) ▲소병훈(73)

▲손종호(74) ▲손효원(75) ▲송명준(61) ▲송석웅(63) ▲신동오(56) ▲신태한(67) ▲신현정(65) ▲심이택(63) ▲심창생(64) ▲안세훈(65) ▲안중일(71) ▲안홍삼(70) ▲양원호(61) ▲양정웅(68) ▲양종화(77) ▲엄기현(55) ▲오원탁(70) ▲오인택(65) ▲오재건(65) ▲우종삼(60) ▲우태우(82) ▲원명희(59) ▲원형재(75) ▲유경준(66) ▲유대중(81) ▲유영제(74) ▲유완주(83) ▲유정철(58) ▲유한동(65) ▲유환규(56) ▲윤봉태(70) ▲윤석구(57) ▲윤재성(60) ▲윤한상(53) ▲이건채(65) ▲이겸덕(63) ▲이경기(59) ▲이계완(50) ▲이관용(60) ▲이권섭(73) ▲이규설(63) ▲이근섭(56) ▲이근호(74) ▲이기철(77) ▲이대락(66) ▲이두기(55) ▲이동성(63) ▲이동한(63) ▲이무렬(71) ▲이범철(67) ▲이상렬(56) ▲이상순(70) ▲이상철(75) ▲이선우(59) ▲이수분(73) ▲이순찬(52) ▲이승훈(74) ▲이안부(88) ▲이영일(63) ▲이옥석(56) ▲이완상(58) ▲이우연(55) ▲이우택(70) ▲이원복(58) ▲이원형(74) ▲이재학(58) ▲이재환(82) ▲이정만(74) ▲이정민(56) ▲이정형(68) ▲이종웅(87) ▲이종진(82) ▲이종철(76) ▲이주성(69) ▲이중호(74) ▲이진형(78) ▲이창대(67) ▲이창복(61) ▲이철영(70) ▲이풍기(52) ▲이홍기(81) ▲이희설(56) ▲임규원(65) ▲임복규(67) ▲임성담(75) ▲장명길(74) ▲장무호(75) ▲장철환(59) ▲장태호(61) ▲장학근(61) ▲장현갑(73) ▲장효성(66) ▲전배혁(81) ▲전영국(66) ▲전주홍(69) ▲전풍일(66) ▲정 관(69) ▲정 권(77) ▲정갑생(81) ▲정기용(50) ▲정동운(68) ▲정면수(65) ▲정보현(59) ▲정석진(77) ▲정연수(73) ▲정용태(63) ▲정의식(70) ▲정인용(52) ▲정재익(63) ▲정종대(63)

▲정해걸(73) ▲정현철(57) ▲정형철(55) ▲정희준(71) ▲조경환(73) ▲조규홍(71) ▲조남일(74) ▲조산형(55) ▲조용준(60) ▲조유제(82) ▲조창호(76) ▲주수일(65) ▲지만식(65) ▲진영대(75) ▲차금렬(65) ▲채방은(70) ▲채희창(78) ▲최경련(56) ▲최동규(70) ▲최성일(66) ▲최완철(77) ▲최용덕(55) ▲최용일(67) ▲최운재(56) ▲최정욱(56) ▲최창동(75) ▲최홍민(56) ▲한동환(56) ▲한상진(81) ▲한성갑(56) ▲한태수(79) ▲한호동(56) ▲허기만(63) ▲허문녕(67) ▲허중오(63) ▲홍남표(59) ▲홍성관(68) ▲홍성완(66) ▲홍성훈(59) ▲홍영희(58) ▲홍해준(59) ▲황인홍(57) ▲구창남(64)

◇農科大學

▲강경원(57) ▲강문주(48) ▲강우희(64) ▲강영규 ▲강영선(40) ▲강황운(57) ▲고홍철 ▲구능완(60) ▲권명우(72) ▲권오진(56) ▲금방용(89) ▲김경배 ▲김경식(42) ▲김관선 ▲김구용(76) ▲김대경(55) ▲김도춘 ▲김동호(88) ▲김득래(55) ▲김라섭(59) ▲김병순 ▲김보영(72) ▲김삼식 ▲김상혁(70) ▲김석환(79) ▲김순심(73) ▲김영달 ▲김영도(75) ▲김영철(80) ▲김영필(89) ▲김영환(62) ▲김용구(61) ▲김용배(56) ▲김유신(64) ▲김웅겸(63) ▲김의철(67) ▲김의한(78) ▲김일종(73) ▲김장규(64) ▲김재권(52) ▲김정교(53) ▲김종근(69) ▲김종욱(76) ▲김철주(53) ▲김현성 ▲김현영(84) ▲김훈동(69) ▲김회창(65) ▲남궁건 ▲노재후 ▲류석린(54) ▲류현숙 ▲명의식(58) ▲문준영(84) ▲민경주(56) ▲민경태(84) ▲민선홍(63) ▲민용규(84) ▲박동아(58) ▲박동철(64) ▲박병우(79) ▲박선영(66)

▲박용봉(76) ▲박응봉(58) ▲박장열(57) ▲박재현(87) ▲박종열(71) ▲박창규(78) ▲박창용(59) ▲박춘병(70) ▲박현규(87) ▲박형곤 ▲박희영(57) ▲박희창(55) ▲방충몽(69) ▲배종선(71) ▲백남근(75) ▲백세기(31) ▲백운호(68) ▲변종관(58) ▲복진하(61) ▲서규선 ▲서상호(50) ▲서완수(64) ▲서원명 ▲서원석(73) ▲서응원(78) ▲서정택(71) ▲선 호 ▲성낙창(82) ▲성진환 ▲성현순(86) ▲손환규(68) ▲송기종(62) ▲송삼석(57) ▲신건성(66) ▲신대섭(80) ▲신대영 ▲신명철(67) ▲신영두(65) ▲신용우(47) ▲신자철(72) ▲신재익(64) ▲신재인(62) ▲신정균(58) ▲신제성(65) ▲신종복(58) ▲신천수(56) ▲신쾌승(73) ▲신태식(65) ▲신필교 ▲신한풍(63) ▲심상우 ▲심재구(67) ▲심재철(63) ▲안회철(72) ▲양종석(73) ▲오중용(65) ▲오홍수(60) ▲왕대열(80) ▲우동호(88) ▲유광일(73) ▲유기오(58) ▲유병세(55) ▲유영준(65) ▲이동구(73) ▲이상준(58) ▲이용환(75) ▲이종린(78) ▲이중기 ▲장시출 ▲정선용(63) ▲차대욱(77) ▲최병갑(90) ▲최정식(79) ▲이종호(49) ▲강우상(71) ▲강인평(59) ▲권순국(64) ▲권오완(60) ▲김분원(67) ▲김영배(86) ▲김재곤(55) ▲김태수(75) ▲김필식(65) ▲김현영(65) ▲김홍철(76) ▲박광상(66) ▲박덕영(55) ▲박재룡(65) ▲박종욱(74) ▲박창호(62) ▲박태한(66) ▲방경수(56) ▲백명현(66) ▲백영준(65) ▲부형석(75) ▲손덕호(56) ▲오창환(75) ▲우관희(67) ▲우종구(85) ▲유관희(67) ▲유승웅(64) ▲유재웅(56) ▲유정주(70) ▲유형우(74) ▲윤병옥(82) ▲윤상기(87) ▲윤재수(70) ▲이계홍(62) ▲이덕남(74) ▲이덕원(74) ▲이돈성(65) ▲이병하(60) ▲이복진(80) ▲이상근(89) ▲이승겸(79) ▲이영찬(65) ▲이종운(66) ▲이종태(70) ▲이창호(59) ▲이택규(67) ▲임명규(62) ▲장낙연(59) ▲전갑덕(65) ▲정민현(82)

▲정은미(89) ▲정찬지(66) ▲정태성(71) ▲제종근(70) ▲조병곤(74) ▲조성지(56) ▲조수경(76) ▲최동룡(74) ▲황희상(58) ▲박노홍(66) ▲백원재(75)

◇文理科大學

▲강경신(72) ▲강대건(67) ▲강석명(61) ▲강신규(56) ▲강신홍(64) ▲강윤석 ▲강재인 ▲강정문(71) ▲강한영 ▲고광평(70) ▲고명원(50) ▲공영일(61) ▲곽동찬(62) ▲권규식(57) ▲권대로(48) ▲권동옥(55) ▲권영한(63) ▲권형중(67) ▲김현의(56) ▲김광우(72) ▲김교훈 ▲김기동(66) ▲김기주 ▲김기태(68) ▲김동춘 ▲김동진(70) ▲김두회 ▲김명우(58) ▲김명혁 ▲김병국(49) ▲김병일(63) ▲김부남(70) ▲김사현(57) ▲김상부(60) ▲김상원(61) ▲김석만 ▲김성기 ▲김성배(63) ▲김성호(61) ▲김승한(49) ▲김양일 ▲김양주(60) ▲김영도(56) ▲김영민 ▲김영웅(67) ▲김영일 ▲김용년(58) ▲김용태(56) ▲김용태 ▲김용필(55) ▲김위겸 ▲김이순(64) ▲김인규(73) ▲김인용(69) ▲김재성(56) ▲김재혁 ▲김종섭(55) ▲김준기 ▲김진재 ▲김진화(61) ▲김하진(62) ▲김현중(52) ▲김황진(59) ▲나기영(58) ▲남영우(72) ▲남창우(61) ▲노영림(70) ▲도재범(67) ▲도태균(67) ▲문 용(58) ▲문광웅(65) ▲문양주(63) ▲문영모(66) ▲문용식(65) ▲민동근 ▲박금자(70) ▲박대일(65) ▲박명근(56) ▲박병언(65) ▲박승춘 ▲박옥순(63) ▲박완규(67) ▲박용주(32) ▲박우홍(61) ▲박웅철(65) ▲박종오(60) ▲박종표 ▲박찬부(70) ▲박청일 ▲박휘섭(75) ▲박희영 ▲방 곤(55) ▲방준영(67) ▲배성군(60) ▲백병태(76) ▲백선복(67) ▲백승본(55) ▲변세근(69) ▲변용찬 ▲서기일(64) ▲서병현(53) ▲서일환(60) ▲서정균(56) ▲손영림(57) ▲손영호(59) ▲송규정 ▲송길상(54) ▲송상용(49) ▲송석훈(56) ▲송호우

▲송운옥 ▲송종섭(62) ▲신광준(54) ▲신병진 ▲신영균(51) ▲신영철 ▲신윤재(58) ▲신재하(60) ▲신지현(57) ▲신효순(61) ▲심상걸(65) ▲심장섭 ▲안기문(55) ▲안증일(72) ▲안재헌(71) ▲안종태(61) ▲안진고 ▲안택수(66) ▲양경린(59) ▲양석주(74) ▲양영수(72) ▲엄규진(48) ▲오준석(52) ▲오태환(65) ▲원영희(62) ▲원인기(70) ▲유광식(62) ▲유일현 ▲이교영 ▲이귀경(66) ▲이능우 ▲이문환(57) ▲이원구(60) ▲이재복(60) ▲이주용(57) ▲이진종(65) ▲이진회 ▲이태욱(61) ▲이홍영(48) ▲임회완(65) ▲장득성(58) ▲장인식(65) ▲정병순 ▲정상열 ▲정서구(69) ▲정오근(66) ▲정창렬(68) ▲정태훈(57) ▲조용주(72) ▲조운제(57) ▲조유전(66) ▲채관수 ▲최덕근(71) ▲최홍순(60) ▲한영성(63) ▲홍준모(56) ▲황운철(57) ▲황필례(56) ▲채관석(29) ▲강순금(55) ▲권병수(70) ▲권오술(74) ▲권태승(60) ▲금장태(66) ▲김 승(65) ▲김기조(55) ▲김상균(70) ▲김선리(68) ▲김예식(60) ▲김유진(51) ▲김용영(65) ▲김인룡(49) ▲김준영(56) ▲김진석(65) ▲김쾌렬(70) ▲김한배(71) ▲김한웅(59) ▲김현석(69) ▲김현창(49) ▲김형희(68) ▲김홍중(65) ▲김희자(67) ▲마수학(72) ▲문찬홍(59) ▲박동혁(68) ▲박세웅(65) ▲박재호(72) ▲박종철(62) ▲박지용(49) ▲방경조(65) ▲배충한(60) ▲변종섭(52) ▲변창명(60) ▲신용우(56) ▲심재규(82) ▲안상진(53) ▲안태형(65) ▲안현화(56) ▲양이훈(74) ▲양정섭(51) ▲양찬규(60) ▲엄경일(68) ▲염재수(71) ▲염태호(63) ▲왕종일(66) ▲유재방(71) ▲유재홍(67) ▲윤 기(65) ▲윤덕한(62) ▲윤정옥(56) ▲이 순(60) ▲이규증(59) ▲이근남(72) ▲이기남(71) ▲이동복(57) ▲이병종(56) ▲이병화(88) ▲이부남(65) ▲이상기(75) ▲이상렬(75) ▲이상현(68) ▲이수녕(59) ▲이영석(50) ▲이영섭(67)

▲이오재(86) ▲이옥수(56) ▲이용웅(69) ▲이우명(70) ▲이원우(66) ▲이종성(71) ▲이찬구(62) ▲이화래(56) ▲인치택(60) ▲임병철(53) ▲임장재(60) ▲임장조(62) ▲장석환(66) ▲장원홍(65) ▲정운학(58) ▲조우식(74) ▲조우현(59) ▲조홍래(67) ▲조화수(71) ▲주진후(74) ▲지정만(59) ▲최경락(75) ▲탁연택(49) ▲홍국자(80) ▲황선필(64) ▲황의박(67) ▲김용성(50)

◇美術大學

▲고수길(64) ▲권경자(69) ▲권영옥(61) ▲김 범 ▲김경우(63) ▲김명담(62) ▲김선회(72) ▲김주영(86) ▲김영태(86) ▲김영희(69) ▲김원웅(63) ▲김은풍 ▲김창수 ▲김종길(70) ▲남 철(62) ▲배정숙 ▲부현일(64) ▲서도호(86) ▲성철중(74) ▲송복희(78) ▲신용태 ▲안상철 ▲양창보(62) ▲우병탁(84) ▲원인종(86) ▲임헌규 ▲장채일(78) ▲한정회(85) ▲강홍윤(59) ▲김인권(68) ▲김인선(78) ▲김인선(75) ▲김진경(74) ▲김청자(85) ▲김춘옥(68) ▲김현실(70) ▲김호득(75) ▲노숙자(66) ▲박 령(72) ▲박경희(82) ▲박성완(82) ▲박영애(75) ▲박항률(74) ▲백순실(74) ▲백영자(68) ▲변진의(65) ▲손복희(71) ▲신완식(77) ▲안기순(83) ▲안명숙(71) ▲원은경(80) ▲윤명노(60) ▲윤옥진(68) ▲윤정애(69) ▲이명희(72) ▲이보연(73) ▲이영자(67) ▲이은화(72) ▲이인옥(74) ▲임영선(83) ▲장호익(74) ▲정종미(80) ▲조영철(65) ▲차명희(70) ▲최선주(73) ▲한진성(83) ▲홍명섭(76) ▲홍순화(81)

◇法科大學

▲강민구(81) ▲강원일(63) ▲경재영(56) ▲곽성용(61) ▲곽장홍(84) ▲권영노 ▲금병훈 ▲김갑수(35) ▲김경석 ▲김경철 ▲김국진(65) ▲김기수(63) ▲김기춘(82) ▲김기현(61) ▲김녹규(69) ▲김두표(73) ▲김두환(57) ▲김득수 ▲김만석(64) ▲김상태(52)

同窓會 발전은 同門의 會費로부터

上半期內에 完納을 바랍니다

◇師範大學

◇商科大學

◇獸醫科大學

◇藥學大學

職場支部

▲포항공과대학 : 1백만원 ▲공주교육대학 : 18만원 ▲동양제과㈜ : 24만원 ▲한국도로공사 : 13만원 ▲명지실업전문대학 : 24만원 ▲춘천교육대학 : 25만원 ▲전성탁 ▲김봉주 ▲이상운 ▲신순임 ▲원훈의 ▲성의용 ▲이완섭 ▲이완회 ▲원경열 ▲백정자 ▲전홍열 ▲이대형 ▲김정휘 ▲장성모 ▲서병하 ▲박종렬 ▲김본선 ▲홍종운 ▲송환용 ▲한진구 ▲강태완 ▲김광명 ▲이길종 ▲나병소 ▲심우엽 ▲이형춘 ▲이재봉 ▲박민수 ▲호남정유㈜ : 38만원 ▲대한제당㈜ : 38만원 ▲한일개발㈜ : 21만원

紙面관계로 藥大 일부와 그 이후는 다음 호에 게재됩니다.

三佛 文人畵展

老学者의 정신세계 잔잔하게 표출

◇솔나무 庵子에서 · 1984 · 32×57.5cm

「文人畵」란 시인 또는 학자와 같이 직업적인 화가가 아닌 士大夫층 文人들이 餘技로 그리던 그림을 말한다. 따라서 대상의 외형을 묘사하는 形似보다 내면의 정신세계를 표출하는 寫意를 중시한다.

三佛 金元龍동문은 교수·박물관장·문화재위원·고고학자·미술사학자 등 다방면에서 가히 泰斗로 군림하고 있다. 흔히들 입걸어 「이시대 마지막 文人畵家」라 칭하는 그의 이번 古稀展에 쏠은 世人의 관심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45년 文理大卒·한림大 객원교수〉

公演

▲서울심포니 협주곡의 밤

-4월13·14일 예술의전당

민간교향악단으로 활발한 연주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서울심포니오케스트라가 '91 교향악축제에서 보여준 레퍼터리와는 또 다른 시도로 마련한 무대. 이번 연주회는 金重石(62년 音大卒, 단국大교수) 동문의 지휘로 초·중·고교생으로 구성된 협연자들이 모짜르트의 바이올린협주곡 3번을 비롯, 멘델스존·비에냐프스키·하이든등 다양한 시도를 모색하고 있다. 잘 다듬어지지는 않았으나 아직 때묻지 않은, 그러기에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이들의 무대에서 새로움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조민정, 한수희, 김지영 등이 협연한다.

▲李鍾協 바이올린 독주회

-4월11일 예술의전당

모교 音大졸업(66년)후 서독 프랑크푸르트음대를 거쳐 국립교향악단, 獨라이니체필하모닉등에서 활약하다 현재 中央大에 재직중이다. 이론과 실기에 있어「교과서적인」연주자라는 평을 듣는 李동문의 음악은 이미 완숙의 경지에 들어섰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바흐의 소나타 1번·베토벤의 소나타 2번 Op. 12·스트라우스의 소나타 Op. 18등 바이올린의 묘미를 한껏 맛볼 수 있는 곡들이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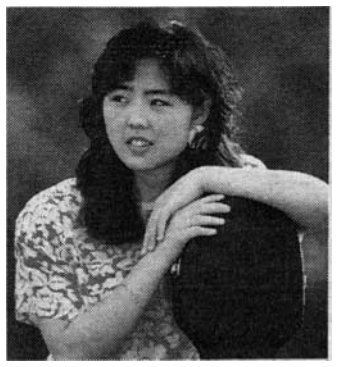
李鍾協동문

피아노 협연에는 현재 뉴욕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준차(63년 音大) 동문이 오랜간만에 고국무대에 선다.

▲林慶園 첼로독주회

-4월2일 예술의전당

모교 音大졸업(85년)후 渡美, 메네스음대를 거쳐 오는 5월 Stony Brook음대에서 박사학위를 받는 林慶園동문의 국내 3번째 연주회. 이화 경향콩쿠르·동아음악콩쿠르등에서 1위 입상함으로써 주목받기 시작했던 그는 홍콩·호주등지에서 개최된 아시안 청소년음악제에 한국대표로 참가한 것을 비롯, 미국에서도 뉴욕동문회 오케스트라, 메네스 오케스트라 등의 협연과 메네스콩쿠르 1위 입상경력을 지니고 있다. 베토벤의 소나타 102번을 비롯, 슈만·브리튼이 연주되는데 그 자신에게 있어 친숙하면서도 꼭 들려주고 싶었던 곡들이라고. 피아노협연은 예고 동기인 민혜성이 맡는다.



▲朴炳勳·權景淳 듀오콘서트

-4월29일 호암아트홀

첼리스트 朴炳勳동문(74년 音大卒)과 피아니스트 權景淳동문(73년 音大卒)은 서울예고시절부터 호흡을 다져왔다. 朴동문은 오스트리아에서 수학한 뒤 서울바로크합주단 수석, 서울시향을 거쳐 현재 KBS교향악단과 필하모니아 현악4중주단의 멤버로 활동하고 있다. 權동문은 이탈리아에서 화려한 데뷰를 한후 국영RAI방송을 통해 유럽 전역을 대상으로 Duo 연주가로 활약한바 있다. 현재 국립합창단의 피아니스트로 활동중. 이들의 이번 공연은 에클레스의 소나타 G단조, 슈베르트의 소나타 A단조등 첼로와 피아노의 교감속에 완숙한 연주를 접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된다.

新刊

▲音樂家의 꿈과 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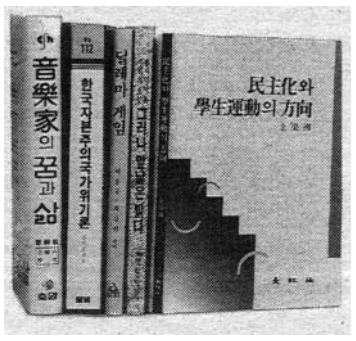
-曺祥鉉 著(51년 音大卒·서울뮤직클럽회장)

한국 악단의 초창기를 다지며 한평생을 음악에 심혈을 기울여온 원로 음악가의 지나온 여정을 에피소드와 함께 기술한 저자의「음악과 思想」제5집. 그간 국내외를 무대로 정열적인 활동으로써 국내 음악발전에 적지 않은 공헌을 해온 저자가 한평생을 일관해온 음악에의 애정, 자식들(曺트리오)의 성장기, 음악인생에서의 단상등을 담담한 필치로 엮어가고 있다. 권말에는「어머니를 찾아서」등 20여편의 자작시를 모아 저자의 또 다른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호암刊·7천5백원〉

▲民主化와 학생운동의 方向

-金榮國 著(54년 文理大卒·母校부총장·本報편집위원)

『모든 운동은 역사의 흐름속에서 역동적으로 전개된다. 학생운동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다』는 전제하에 과거 반민주적 권위주의시대에 존재했던 전통적 학생운동(즉 街鬪가 강조됐던)이 現今에도 타당성을 지닐 수 없다는 정치학자의 소견을 잔잔하게 전개하고 있다. 또 저자가 학교라는 울타리에서 그간 직접 관찰해온 학생운동을 정리하면서 앞으로의 올바른 位相을 제시하고 있다. 전체 4장으로 구성된 이책은 한국 학생운동의 성격·역사적 고찰·외국의 경우·앞으로의 방향을 통해 운동논리의 다원화와 운동방법의 비폭력화를 모색하고 있다.〈大旺社刊·3천원〉



▲그러나 앞날은 밝다

-洪思德 著(68년 文理大卒·民主黨부총재)

「홍사덕이 본 우리의 오늘」이란 부제를 달고 있는 이책은 오늘날 나라 안팎의 산적한 난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저자의 개혁의지를 담고있다. 저자는 이책을 통해『우리 배달민족의 입장에서 비극적 시기였던 20세기, 그 마지막 10년을 남겨놓고 우리민족이 지구촌의 못난이 천덕꾸러기였던 시대를 새롭고 위대한 꿈을 가진 시대로 바꾸고자』했다고 밝힌다. 제1부 바람직한「정치풍토를 위하여」에서 제4부 나라를 이끌어갈 젊은이들을 위하여」까지 저자의 일관된 철학과 신념이 혼돈된 사회를 조명하고 있다.〈햇빛출판사刊·4천원〉

▲딜레마게임

-李弘揆(68년 醫大卒·모교교수) 崔康元(69년 醫大卒·모교교수) 編·譯

이책은 美國의 과학잡지에 연재됐거나 일련의 과학철학이 담긴 수필들을 모아「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을 서로 협동하게 할 수 있을 것인지」를 생각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책은 왜 사람들이 협동하지 않으려는지를 설명하면서 일견 관련이 없어보이는 과학수필들을 통해 결국에는 우리의 미래를 암시하고 있다. 이 책은「특이한」편집방식으로 만들어진 진화론적 인간학, 생물사회학 입문서로서「人性」에 대해 숙고한 흔적이 곳곳에 배어있다.

〈고려의학刊·4천원〉

▲한국자본주의국가위기론

-金錫俊 著(73년 工大卒·梨大법대교수)

이책은 분단 자본주의국가로서 한국이 겪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국가위기라는 개념을 빌어 분석하면서 그 극복을 위한 처방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이책에서 현재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총체적 위기」를 학계나 정부여당에서는「상황적 위기」로, 비판적 시각에서는「구조적 위기」로만 파악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제도권과 비제도권간의 첨예한 대립이 현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보다는 상호 대결적인 입장에서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전제하에 광범위한 세계각국의 예를 들어 우리의 경우와 대비시켜 결국에는「계급타협의 불가피」라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풀빛刊·1만원〉

母校소식

과학재단 理事長에 趙完圭총장 선임

조완규 총장은 3월13일 한국과학재단의 제7대 이사장으로 선임되었다. 한국과학재단은 과학기술의 창달·진흥에 기여하기 위하여 한국과학재단법에 의거, 설립된 재단이다.

新入生맞아 冠岳 활기넘쳐

趙총장 "미래 開拓할 力量 키우라" 당부

91학년도 1학기 개강을 맞은 모교는 지난 3월2일 4천3백82명의 새로운 식구들을 맞이하여 활기 넘치는 새출발을 시작했다.

이날 오전11시부터 관악캠퍼스체육관에서 거행된 입학식은, 趙完圭총장을 비롯한 교직원들과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기·교기에 대한 경례 ▲선서문 낭독 ▲기관장 소개 ▲식사 ▲교가제창의 순으로 진행됐다.

趙총장은 입학식사를 통해 『자신과의 외로운 싸움을 승리로 이끌고 오늘 누리게 된 영광은 곧 우리나라의 새로운 영재들을 받아들이는 우리 대학의 자랑이며 기쁨이다』라고 말한 뒤, 대학시절은 젊음과 낭만이 가득찬 가장 아름답고 소담스러운 시절이라고 전제하며, 신입생들에게 『대학에서 전문지식을 배워 익힐 뿐 아니라 폭넓은 지식을 온축하며 내일을 새롭게 창조할 역량을 키워 지성인으로서, 그리고 지도자로서 나라의 미래를 개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趙총장은 이어 『민족생존과 결부된 문제들을 역사의식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힘을 키워달라』고 당부했다.

教授8명 新任

모교는 지난 3월 安三煥(인문대 독어독문학과 부교수)을 임용하는 등 8명의 교수를 신규 임용했다.

이번에 새로 임용된 교수는 모두 동문이며 이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安三煥(인문대 독어독문학과 부교수):66년 文理大졸, 同대학원 석사, 독일 Bonn대학 박사, 연세대 독문과 교수 역임.

▲權五良(사대 영어교육과 조교수):72년 師大卒, 미국 The Univ. of Texas at Austin대학원 박사, 충남대 문과대 교수 역임.

▲崔起榮(반도체공동연구소 조교수):78년 工大卒, 한국과학원 전기및전자공학과 석사, 미국 스탠포드대학교 박사, 미국 케이던스 선임연구원 역임.

▲崔炯仁(자연대 수학과 부교수):75년 工大卒, 미국 Univ. of California대 석사, Berkley대 박사, 미 아이오와대학 부교수 역임.

▲吳星煥(사회대 경제학과 조교수):79년 商大卒, Brown Univ. 석·박사, UCLA경제학과 조교수 역임.

▲趙文燮(자연대 지질과학과 조교수):77년 文理大卒, 캐나다 토론토대 석사, 미국 스탠포드대 박사.

▲柳判童(수의대 수의학과 전임강사):83년 獸醫大卒, 同 대학원 석사, 미국 아이오와주립대 박사, 예일대 의대 연구원 역임.

▲鞠 樑(반도체공동연구소 부교수):75년 文理大卒, 同 대학원 석사, 미 펜실베니아주립대 박사, 펜실베니아주립대 물리과 대학원 특별위원.

精密기계 語學研 音樂堂등 研究·文化시설 확충

각종 연구기관과 문화시설등이 관악의 곳곳에 세워지고 있다.

먼저 정밀기계공동연구소(소장:趙宜秉·기계설계학)가 4·19탑 뒤에 건축된다. 기공식은 지난 3월5일 있었는데, 이 연구소는 기계공학 기초연구는 물론이고 첨단정밀기계기술 및 설계기술개발연구 등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또한 어학연구소와 지역연구센터 건물이 체육관과 파워플랜트 중간에 세워질 계획인데, 이중 현재 학생회관에 위치하고 있는 어학연구소의 이전은 학생회관 공간확보를 요구하는 동아리연합회등의 학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대학교 음악당」이 음대 후면도로사이에 세워질 예정이다. 음악교육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예음문화재단에서 기증한 이 음악당 공사는 내년 5월에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컴퓨터신기술공동연구소를 위한 연구동신축공사가 내년 4월부터 시작되는데, 위치는 학군단운동장 동쪽이다.

韓國科學財団 지정 우수연구센터 開所

한국과학재단으로부터 지난 1월4일 우수연구센터로 지정된 모교 7개소의 연구센터가 3월20일 2시 문화관 소극장에서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했다.

이번에 문을 열게 된 곳은 대역해석학연구센터(소장 김홍식 수학과교수)·세포분화연구센터(소장 한두봉 동물학과 교수)·암연구센터(소장 장우현 의대교수)·농업생물신소재연구센터(소장 박관화 식품공학과 교수)·제어계측신기술연구센터(소장 권욱현 제어계측공학과 교수)·터보·동력기계연구센터(소장 노승탁 기계공학과 교수)·신의약품개발연구센터(소장 정원근 약대 교수)이다.

「아동연구소」 設立 계획

青少年·家族문제 다룰

모교는 아동, 청소년, 가족문제등을 연구하고 이에 대한 예방과 치유를 위한 정책의 제시를 주목적으로 하는 「아동, 청소년 및 가족연구소」설립을 위한 준비작업에 한창이다.

현재 이 연구소 설립계획은 소비자아동학과, 심리학과, 교육학과, 사회복지학과, 인류학과, 농가정학과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연구소는 아동과 청소년의 교육 및 복지문제를 관련 학과가 공동연구하여 총체적 관점으로 실도깊게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것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 이 연구소는 취업여성과 관련한 시설확충 및 방법모색, 취학전 아동의 조기교육, 빈곤가정의 부모교육, 청소년의 일탈방지 등의 문제를 해결할 치료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가도 양성할 계획이다.

한편 가정대학 李基春교수는 『급속한 산업화와 함께 심화된 아동, 청소년 및 가족문제를 지금까지 절박하게 인식해왔으나, 개별적으로 연구되어 인력 낭비, 비효율성 등의 문제점을 보여왔다』고 전제, 『아동 청소년및 가족연구소와 같은 전문적인 연구센터가 설립되면 연구대상이 동일한 연구자들끼리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 보완하여 연구에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연구소 설립계획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農協서 奬學金 千8백만원 전달

농협 서울대지점은 총1천8백만원의 장학금을 모교에 전달했다.

매년 같은 금액의 장학금을 지급해온 농협은 작년까지는 지방출신 학생중 수혜대상을 직접 선별하여 지급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장학생 선발과 지급을 학교측에 전적으로 위임하여 수혜자의 폭을 넓히는 결과를 가져왔다.

冠岳舍 개관

2천2백명 入舍

개강과 더불어 관악사에는 신입생의 경우 남자 1천2백56명·여자 2백73명, 재학생의 경우 남자 2백40명·여자 1백60명, 대학원생의 경우 남자 1백96명·여자 65명 등 총2천1백90명의 사생이 입사하게 됐다.

선발방법은 신입생 및 대학원생의 경우 관악사 컴퓨터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하였으며 학부재학생은 90년 2학기말 각 소속 단과대학에서 선발했다.

獸医大 학장에 趙忠鎬 교수

◇ 趙학장

모교 수의대 학장에 趙忠鎬교수(수의학)가 지난 3월2일자로 임명됐다.

신임 趙학장은 53년 모교 農大 獸醫學科를 졸업하고 77년부터 모교 수의대 교수로 재직해왔으며, 수의대 부속 동물병원장, 대한수의학회장을 역임했다.

동창회 光州 지부

発展基金 5백만원 出捐

동창회 전남·광주지부(지부장 홍승민·홍안과원장)는 지난 3월6일 모교 발전기금으로 5백만원을 출연했다. 동창회 지부단위에서 발전기금을 출연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서 지부·직장·기별등 모임별로 모교 발전기금을 출연하는 좋은 선례를 남겼다. 전남·광주지역 동창회는 홍승민 지부장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91학년도 전남·광주 출신 신입생 3백50여명에게는 입학 축하기념품도 전달할 계획이다.

2월26일부터 3월15일까지 발전기금 출연자는 다음과 같다.

▲진기홍(제일제당연구소 제1연구실주임연구원 자연대 미생물학과 86년졸) 1만원 ▲서울대동창회 전남·광주지부(광주시북구 수문동 210) 5백만원 ▲박종태(삼남상사대표) 10만원 ▲이상주(삼성종합화학 LDPE생산부대리, 화학공학과 86년 졸) 3만원

고침: 本報 156호

모교 발전기금 출연자중 자료착오로 인해 東洋投資金融의 대표 김영태은 김병태으로 바로 잡습니다.